

제424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24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철회 동의의 건
가.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3)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4. 현안 질의

상정된 안건

- | | |
|--|---|
| 1. 철회 동의의 건 | 2 |
| 가.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3) | |
|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3 |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3 |
| 4. 현안 질의 | 9 |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지난 3월 영남권의 산불과 4월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도로 붕괴 사고 등 연이은 재난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먼저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과 심사기간이 도과한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한 다음 행정안전부 등 7개 기관에 대하여 현안 질의를 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이번 추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대부분 지난 3월 영남권 산불에 대한 후속 조치 예산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 및 제도상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시설 복구 및 생계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도 그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추경안이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농어업인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생계 지원 수준이 아닌 재난 이후의 경제활동 기반의 회복 그리고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피해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안 심사와 병행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해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코자 합니다.

정부는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 법률이 개정된 후에는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배치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아람 입법조사관입니다.

임현숙 주무관입니다.

권현라 주무관입니다.

박소연 실무원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 의정 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철회 동의의 건

가.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3)

(11시02분)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 법안을 발의하신 김성원 의원 등 6인으로부터 법안 철회 요구가 있어서 국회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90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

니다. 참고로 국회법상 위원회에서 이미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동 법안의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류 중인 31건의 청원 중 2건의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 국회법 제125조 제6항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의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추경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별도의 의사진행발언인데 좀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신정훈 추경을 먼저 하고 하십시오.

○용혜인 위원 추경하고요?

○위원장 신정훈 예.

○용혜인 위원 알겠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11시04분)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관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곧바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하신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안 질의를 이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지금은 추가경정안에 대한 토론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혜인 위원 대체토론 진행하면 될까요?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고기동 차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다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보도가 됐는데요. 실제로는 한 50조 원 정도 추경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침체기에 사실 꼭 들어갔어야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과연은 됐지만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 시절의 긴축재정의 기조들이 이 추경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국 정권이 바뀌면 민생회복지원금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생회복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리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 건데요. 지난해에는 이 발행액 지원에 2500억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0원이었고 이번 추경에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와 골목 경제 그리고 내수 경제가 완전히 바닥인 상황인데 이번 추경 편성 시에 행안부 차원에서 기재부에 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용혜인 위원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용혜인 위원 예결소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편성 요구가 있을 경우에 행안부에서는 동의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어쨌든 이번 추경이 필수 소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마 그런 취지가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용혜인 위원 저는 과거에 예산편성할 때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돼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윤석열 정부를 넘어서 행안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 상생페이백 예산이 1조 4000억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까다로워서 저는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인지가 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최대 30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지요. 그리고 이런 경기침체 상황에 카드 소비 증가액이 얼마나 나올지도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 1.4조 원 중에 사실 상당한 부분이 불용 예산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 총액에서 증액하는 예산은 다른 민생 지원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상생페이백 예산에서 1조 원 정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1조 원이면 사실은 발행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민생회복의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은 행안부에서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생페이백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서울이나 경기도, 대도시 중심의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상품권으로 주게 되면 더 쓸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저는 합리적인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과 양당 간사님들 그리고 예결소위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면 코로나 시기에 추경 할 때 지역화폐 발행 3조 원에 대해서 8%를 정부가 부담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만약에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했을 경우에 예상됐던 재정지출 규모가 13조 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체 규모로 잡으면 한 1조 원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하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고민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민생 고통의 시기에 이 정도 예산도 편성하지 못한다면 저는 경제 침체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추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차관님, 이번 추경 6600억이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 금액은 행안부의 재난대책비로 6600억이 반영이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1.4조가 산불 피해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처까지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묘목값만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 디테일하게도 문제 제기할 것이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리면 2022년 동해안 산불의 복구계획 확정액이 총 4128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의 4배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이 6600억 원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말로 지난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서도 충분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좀 면밀한 점검을 통해서 적극적인 증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특별법 제정해서라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이 특별법 논의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오늘 특별위원회도 본회의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당연합니다.

○**용혜인 위원** 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대체토론 필요하신 분, 손을 들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나 또 담당자 면담을 통해서나 또 현장에서 우리 차관께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유례 없는 산불 피해에 대한 추경안의 규모도 문제이지만 지원 기준에 대해서 정말 재고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차관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대개 지금 N분의 1로 지원되는 그런 지원 기준은 대단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좀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산불 피해는 사상 유례가 없고 돌기둥까지 다 태워 버리는, 완전히 삶의 현장과 또 경제활동의 현장을 다 태워 버리는 그런 현상으로 귀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 기준은 오로지 주택하고 생계 구호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N분의 1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서 경제활동의 현장인 농업생산시설, 경제활동의 현장인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그리고 농공단지가 완전히 불타 버린 중소기업인들의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 기준도 없어요. 소상공인은 아무리 큰 피해를 입어도 500만 원 미만의 지원을 받게 돼 있는 게 지금 예산안의 구조입니다. 중소기업들에게는 저리 자금이 고작입니다.

평생 자기 삶의 터전들을 일궈 왔던 국민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의 실화 때문에 또 우리가 적기 대응하지 못해서 산불이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피해 국민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지원이라든가 생계비 일부 지원이라든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경제활동의 기반시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도 없이 거기다 그냥 생계비하고 주택비 이 정도에만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는 상황이라고요.

특별법이 지금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취지도 대부분 위원님들의 주장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해 주민들의 피해 규모, 피해 정도,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당해 버린 우리 국민들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정부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심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정부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6600억이 아니라 6조 원을 써도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에게는 부족합니다. 하여튼 적기, 적재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또 재난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와 기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거의 모든 행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많이 응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처럼 농어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은 지금 관계 부처랑 또 재정당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말씀 주셨던 농업 부분에 대한, 송이도 포함해서 농업 생산물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저희 행안부 예산 6600억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가를 높여 가지고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빠른 속도로 협의를 마치도록 애쓰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예결위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신속하게 대안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는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재정 당국에서 어쨌든 필수 추경으로 필수 소요만 반영하다 보니 그 내용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위성곤 위원** 지금 이번 추경은 사실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이지요?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AI도 있고요. 재난 대책도 있고……

○ **위성곤 위원**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이잖아요, 핵심적인 게.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성곤 위원** 판단하셔야지요, 권한대행께서.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필수 추경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성곤 위원** 한편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안부에서는?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1분기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성곤 위원** 어느 정도지요?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1분기 신속 집행으로는 지난해보다는 실적이 나았습니다.

○ **위성곤 위원** 실질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행안부가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성곤 위원** 매일매일 점검하십니까?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성곤 위원** 하고 계신데 답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걸 보면 점검을 안 하시는 걸로밖에 확인할 수 없는데요.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아닙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는 더 집행을 한 것으로, 2조 원 정도 더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 지자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경기 부양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건설 공사라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번 추경안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건설 관련해서는 저도 정확히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지자체에 교부해서 지자체가 그 사업을, 사실은 경기 부양에서 일자리 효과라든가 경기 승수효과가 가장 높은 게 건설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규모 사업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지자체의 관련 수요들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재정 수요, 건설 수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성곤 위원** 예, 우리가 소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현안사업비로 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위성곤 위원**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얼마 교부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특별교부세는 지금 교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반기 6월 말……

○**위성곤 위원** 아니, 경기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일상적으로 4월에 이루어지는 특별교부 세도 교부를 안 하면 도대체 경제 대응 추경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행안부가?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시책분은 일부 나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것은 나가지는 않았고요. 그와 아울러서 지금 지방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건설 경기 등 관련된 각종 규제들은 저희가 많이 풀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부가 갖고 있는 재원을 풀어서 국민들께 가게 하고 그것이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 진작이 만들어지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특별교부세 잔액이 얼마 남았지요, 8000억에서?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게 많이 집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최대한 빨리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해서 실질적으로 경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행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 점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5월 초라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게 가능하도록 해 주셔야 지방 경기가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봐야지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산 집행률들을 점검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하게끔 독려를 하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관련되어진 예산 증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추경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현안 질의

(11시 20분)

○위원장 신정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안 질의와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법안 상정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과면 결정이 내려진 지 벌써 20 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란의 혐의가 있는 자들이 국정 운영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행안위 소관의 여러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법안 상정이 없기 때문에 조속하게 법안을 상정해 주시고 법안 논의를 시작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통령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뒷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다가 현재에 의해서 지금 제지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가 있는 자들에 대한 알박기 인사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국정의 현상 유지를 국한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현재의 가처분 판결의 취지이고 또 헌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중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시급히 상정·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 이관을 위해서 현장 점검을 마친 시점에 대통령실 관료들이 기록물 이관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내란과 무관할 수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내란의 여러 증거들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수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에 대한 증거들뿐만 아니라 윤석열内外의 여러 비위·비리 사실들과 관련된 증거들까지 한 번에 최장 30년 봉인될 수 있다는 점, 이 법안이 시급히 상정되고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인데요. 오늘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유가족분들이 국회를 찾아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정당성 없는 박선영 위원장의 임명과 또 극우적 역사관으로 비판받았던 박선영 진화 위원장의 임기 연장만은 막아 달라 그리고 국회가 나서서 3기 진화위를 출범시켜 달라라

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실 박선영 위원장은 윤석열 내란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직무 정지를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보란 듯이 인사권을 행사했던 마지막 인물이 바로 박선영 위원장인데요.

저는 내란의 종식에 이 진화위의 정상화, 역사 쿠데타의 중단이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도 우리 행안위에서 조속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한대행법, 대통령기록물법, 진화위법을 신속하게 상정해 주시고 우리 소위에서 논의해서 우리가 의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 이광희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고가 비품과 관련돼서 국가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저는 현재 비거주 상태인데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파면된 상태인데요. 국고 예산으로 조달된 비품은 품목, 수량, 단가 등 회계정보는 정보공개법 및 국가재정법상 공개대상인데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사적 물품을 구매하거나 단가를 부풀려 착복했을 가능성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명한 검증은 공익적 필요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타워 가격이 170만 원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50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거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비품 목록 일체, 품목명, 수량, 단가, 총액, 구매·납품 일자, 구매 방식, 수의계약 여부 등 주시고요. 두 번째는 관련 지출 문서를 일체 주십시오.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자산등록대장 등 구매 또는 대여 증빙서류. 세 번째는 해당 공사 및 비품 조달 관련 업체 계약서 및 계약 변경 이력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양부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위원장님, 행안부에서는 얼마 전에 대통령기록관장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 압축해 가지고 인혁처로 넘긴 것으로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기록관장 임명도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2명에 대해서, 1명은 그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부적절한 면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압축된 2명의 후보의 심사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서와 서류채점표, 면접채점표를 행안부에 요구했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거론하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자료 제출에 관한 국회법과 개인정보법을 잘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이 자료가 제출돼서 그 과정이 공정하게 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박선영 진화위원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3일 민주당은 정당하게 임명된 박선영 진화위원장이 행안위에 출석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장을 시켰습니다. 박 위원장은 그간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갖은 억측과 수모를 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진화위원회의를 이끌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회의에서는 총 29건의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해 군경에 의한 희생이라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오늘 박선영 위원장의 공식적인 첫 출석인 만큼 그간의 입장과 소회를 들어 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신정훈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러야 된다, 지금 비상계엄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고 과연까지 이루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불법 친위 쿠데타였다 하는 것들이 일단 현법적으로 규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는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는 준비 내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관련 우리 행안위 소속, 특히 행안부에서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들끼리 협의하셔서 이 비상계엄과 현재의 과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속 입법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양부남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기록관관장의 임명이 또한 이런 비상시국에 있어서 과도기 내각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인사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해태하는 것은 대단히 좀 심한 이야기를 들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최소한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그 과정을 중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조은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진화위원회장 그 문제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진화위원회장 폐북에 신정훈 행안위원회장을 미 문화원 방화범으로 표현하셨던데 그런 이야기 굳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첫 출석 과정에서 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했던 것이고 또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현안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충분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출석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사로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반대합니다.

○박정현 위원 뭘 듣습니까.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이 주셨는데 이건 좀……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이 주신다는데……

○정춘생 위원 아니요, 반대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아니요, 일단 우리가 출석요구를, 출석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 30초 내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23일에 출석했다가 인사말씀도 못 드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한 소회와 함께 그날 준비했던 인사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위원장이 취지를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후에 질의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사를 드리라는 것은 정부의 임명을 받고 출석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일반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발언은 답변 과정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정치적인 발언은 저는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짧게 하라고 하시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10일에 취임을 해서 어제까지 많은 사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섯 분이 어제 날짜로 임기가 만료되셔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은 밤 9시까지 저녁을 샌드위치로 대신하면서 신청해 주신 분들의 사건을 최대한 많이 의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헌법과 우리 위원회법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안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불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고 현안 질의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는 별도의 보고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대행께 대통령기록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기록물은 보통기록물, 비밀기록물 그리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있지요? 이렇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되면 최대 15년 열람이 금지되고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간 열람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30년간 봉인이 돼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 현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국면에서 내란과 관련돼 있는 대통령기록물도 이렇게 봉인될 위험성에 놓여 있지요.

그리고 지금 용혜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통령비서실이나 안보실이나 경호처 등에서는 이렇게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것 아니냐, 증거를 인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난 4월 7일 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찾아서 현황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동·재분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요청을 하고.

○이해식 위원 공문으로 요청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해식 위원 답변을 받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저희가 현장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해식 위원 이 이동·재분류 금지 조치 이후에 지금 행안부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탄핵 선고 이후에 바로 공문 조치를 했고 현장 점검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받는 여러 가지 작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란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들을 의원님들이 내고 있어요, 저도 물론 냈고. 아까 용혜인 위원님도 빨리 상정을 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제도개선은 제도개선인데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내란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권한을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헌법상 갖고 계십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말씀 주신 것처럼 무단 파기나 반출을 막기 위해 참여정부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는 아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과 관련돼 있고 그리고 피의자 중의 한 사람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해식 위원 그런데 내란과 관련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은 행안부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행안부장관대행께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절대 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지금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서는 어쨌든 공개됐을 때 정치적 혼란이 우려되는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요. 정치적 혼란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관련돼서 지금 재판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범죄와 관련된 거잖아요. 내란죄와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동안 지정기록……

○**이해식 위원**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대행께서 그런 입장을 확고히 하고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한덕수 권한대행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밝혀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이해식 위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데 오늘 진상조사단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홍준표 전 시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최용휘 전 대구시 공무원 그리고 최용휘 씨의 지인인 박기표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5600여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최용휘 전 대구시 공무원 역시 지인 박기표 씨 명의로 총 열두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 비용 약 4370만 원을 대납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용휘 씨와 강혜경 씨의 2022년 3월 21일 자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보면 최용휘 씨가 강혜경 씨에게 대구 당원 명부가 기재된 엑셀 파일을 보내 주고 엑셀 파일을 열기 위한 암호도 알려 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와 제71조를 위반한 것이고 그렇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아주 중죄를 범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치자금법 그리고 형법 등을 위반한 홍준표 전 시장의 측근인 최용휘 씨는 지금 또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용휘 씨를 포함해서 박재기 씨 그리고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국민의힘 의원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 홍준표 전 시장 이런 분들을 출국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행님 입장,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아직 고발인 진술조사 중에 있고요, 제출자료 또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출국금지 단계까지는 안 가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적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신속하게 수사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싱크홀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대행께 제가 그냥 핵심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의 싱크홀은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환경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행안부 차원에서 재난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인사 사고가 나는 그런 싱크홀은 적어도 공사 중에 발생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명일동 싱크홀도 거기에 서울-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지하철 9호선

현장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이어서 그런 큰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수관 또는 상수도에서 누수로 인해 가지고 침식이 돼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사실은 인명 사고까지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차시 효과를 유발해요. 압도적으로 상하수도 누수가 많아요. 그러나 인사 사고로 번지는 그런 큰 대형 싱크홀 사고는 결국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적어도 이런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을 재난으로 다루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마련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행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정동만입니다.

늦었지만 오늘 국회에서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지난달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면적이 10만 ha가 넘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 때문이었지만 관계 기관의 대응 실패와 주민 대피 전달 체계 부족 등 재난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차관님, 산불 재해 시에 주민 대피령은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주로 재난문자나 마을방송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대피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정동만 위원** 그런데 차관님 답변이 지금 무색할 정도로 주민 대피가 안 되었고 산불이 마을까지 도달하고 대피하는 등 관련 기관 대응이 실패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의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저는 현장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정동만 위원** 볼까요? 행안부가 지금 강조하는 재난문자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다른 장소로 세 번이나 발송하기도 하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이것.

이 재난문자가 더 큰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 외국의 경우에 산림 인접 지역을 보니까 대피소 정보가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공유가 됩니다. 또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면 공무원, 경찰 등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이렇게 대응에 적극적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말씀하신 것처럼 인편을 활용한 대피도 저희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정동만 위원 예측시스템은 산불 초기에만 작동되었고 또 풍향과 풍속이 급하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맞습니다. 이번 강풍까지는 충분히 고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면 또 다른 대비책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산불을 교훈 삼아서 전반적인 대책을 전 부처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보강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진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진화도 중요하고 예방·대응 전반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 개편에 행안부가 적극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 없이 단독처리했습니다.

차관님, 기존 정부가 제출한 2조 6000억 목적예비비 중에서 1조가 감액되어서 최종 목적예비비 예산은 1조 6000억 확정된 것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1조 6000억 중에 재난 상황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4000억이 채 안 됐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가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충분히 더 늘릴 필요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동만 위원 거기다 여야가 합의한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증액 예산도 모조리 삭감됐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지난 것 말씀이시지요?

○정동만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반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삭감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12.2조 중에 산불피해 복구비 1.4조입니다.

차관님, 이 중에 행안부 소관이 얼마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중에 6600억입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정동만 위원 이게 적절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전체적으로는 한 3.2조고요. 저희가 어쨌든 과거 선례보다는 굉장히 단가를 높여서 신청을 한 금액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과거 행안부 재난대책비 예산집행 보니까 2021년에 42.4%고 2022년에 32.2%입니다. 전부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불용액이 크다는 것은 예산이 많은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지 못했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과거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재민이 지금 한 3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3717동이 피해를 입었고 대피인원만 4만 명에 가깝습니다.

차관님, 이분들에게 지금 임시 조립주택이 주어지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직 20채도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잘 직시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일단은 임시 조립주택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정동만 위원** 정부의 대책이 너무 미진한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강할 부분은……

○**정동만 위원** 새집 짓는 비용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자체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서, 지금 농번기잖아요. 그분들 현장에서 직접 농사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오 평짜리 농막이라도 해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말씀 주신 것처럼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임시 조립주택 공급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는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컨테이너 농막 같은 것은 그냥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래도 주민들께서 좀 오래 사셔야 되는 거라 웬만하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잘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동만 위원** 현재 가구당 지원하는 이삼천만 원은 현실성이 안 맞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이재민들 새집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임시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차관님, 나이 드신 분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위원장님도 강조를 하고 그러셔서 전체적인 지원 단가를 높이는 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상하는 것이, 정부가 큰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저도 그 말씀 공감합니다.

○**정동만 위원**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또 피해 지자체와 더욱더 면밀히 소통해서 이재민들 고통이 빨리 해소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동만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 **정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부남 위원** 경찰청 차장님.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 **양부남 위원** 잘 계셨어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 **양부남 위원** 경찰은 국민의 경찰입니까, 정권의 전유물입니까?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민의 경찰입니다.

○ **양부남 위원** 그런데 지난 12월 3일 내란 시에는 국민의 경찰이었습니까, 정권의 전유물이었습니까?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대부분 다 국민의 경찰인데 일부 소수가 국민께 잘못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 **양부남 위원** 그때는 국민의 경찰이라는 본연의 생각을 저버리고 정권의 전유물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금은 모두 다, 경찰조직 전체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양부남 위원** 국민의 경찰로 돌아왔습니까?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직.....

○ **양부남 위원** 아직 안 돌아왔어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평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경찰로 남아 있고.....

○ **양부남 위원** 돌아왔습니까?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부남 위원** 그러면 국민은 뭘 가지고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돌아왔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이제까지 정당한 공무집행을 공정하고 또 적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양부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PPT 한번 볼게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 하나 봅시다.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것 차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봤습니다.

○ **양부남 위원** 다음은 김형기 대대장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됐어요.

차장님, 이것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중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경찰도.....

○양부남 위원 경찰과 비교해서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찰도 수사기관이나 국회에서도 충실히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군은 나름대로 국민의 군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엄청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단면입니다, 이것이.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PPT.

(영상자료를 보면)

이 문건은 비상계엄이 일어나서 12월 6일 날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과 비교했을 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군에서 저렇게 한 것은 군의 입장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헌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법률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경찰이 결코.....

○양부남 위원 하면 안 되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나서지 않을 겁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이런 입장문 발표하신 적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대부분 제가 국회나 이런 데 답변할 때 충분하게.....

○양부남 위원 물론 답변하실 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충분하게 입장을 표명했고요.

○양부남 위원 충분히 했지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별도로 나서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개개의 상임위나 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서 그런 취지로 답변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도 모든 상임위에서 이러한 취지로 답변했지만 대외적으로 국방부 입장을 입장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선언을 한 것이지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경찰도 국민의 경찰로 돌아오시려면 이런 선언이 대외적으로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하시지요. 정말로 국민의 경찰로 돌아오겠다는 의지가 있고 진정한 그런 뜻이 있다면 당연히 국방부처럼 이런 입장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치경찰로 돌아가지 않는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해 보시지요, 정말로 뜻이 있으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양부남 위원 아니 아니요. 비상계엄의 요구가 있을 때 다시는 동원되지 않겠다는 선

언을 하시라고.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정치적 중립 그런 것, 그것은 조자룡 헌 칼을 쓰는 것이고. 국방부차관이 한 것처럼 비상계엄 요구가 있을 때, 쿠데타 요구가 있을 때 경찰은 절대 동원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셔라 이것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들은……

○양부남 위원 아니, 당연한데 국방부는 선언을 했습니까? 경찰도 선언을 하셔라 이것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국방부가 선언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불법한 비상계엄이나 쿠데타에 전혀 동조할 생각도 없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선언은 못 하시겠다 이것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선언이 어떤 식으로 해야 선언인지 말씀……

○양부남 위원 이런 형식으로요. 대국민 선언을 한번 하셔라 이것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 자리에서는 못 하시겠다 이것이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는 부족하시다는 건가요?

○양부남 위원 저는 선언을 해라 이것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어떤 식으로 선언해야 될지……

○양부남 위원 이 형식으로, 국방부처럼.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금방 말씀드렸듯이……

○양부남 위원 브리핑을 언론에, 언론을 상대로 이런 입장문을 내셔라 이것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러니까요.

○양부남 위원 이걸 해야지만이 국민이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돌아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금방 말씀드렸듯……

○양부남 위원 동의 안 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비상계엄을……

○양부남 위원 언제 하시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어떤 식으로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불법이나 쿠데타는 경찰은……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선언을 해 보시라고요, 국방부처럼. 할 생각이 없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부남 위원 그건 말로 하는 것이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양부남 위원 서류로 경찰의 입장을 발표하라 이것이지요, ‘비상계엄 관련 경찰의 입장’ 해 가지고. 진정으로 국민의 경찰로 돌아올 뜻이 없다고 보여지시는데, 그러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양부남 위원 내가 영어로 한 것도 아닌데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금 그 말씀을 하라는 건지 문서로 해 달라는 것인지……
- 양부남 위원 문서로 해 보시라 이것이지요. 국민 앞에, 대국민을 상대로 문서로 한번 언론 브리핑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걸로 부족하면……
- 양부남 위원 부족합니다. 선언을 하세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선언 아닙니까?
- 양부남 위원 선언 아니지요. 국방부도 여러 번 국회에서 차장님 수준의 이야기는 했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문서로 국민을 향해서 하실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뭐 선언하자면……
- 양부남 위원 이게 선언이 아니지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선언하겠다고 금방 말씀드렸고요.
- 양부남 위원 그러면 선언을 하실……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선언의 방법이……
- 양부남 위원 선언의 방법이, 이렇게 문서로 해 보시라 이거예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이 생각하는 방법하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 양부남 위원 다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선언이 아닙니다. 국민을 향해서 대언론에 한번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십시오.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러면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 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양부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꼭 해 주시기를 부탁……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다음주에 기자회견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부남 위원 통보하십시오. 이것이 경찰이 정말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대외적 선언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왜 혼인신고 합니까?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의심하지 마실 필요가 있는데요.
- 양부남 위원 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이 절대 계엄에 편들거나 그쪽에 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 양부남 위원 차장님, 우리가 다 문서로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맹약을 하는 겁니다. 꼭 얘기를 해 주세요.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 전에도 꾸준히 밝혀 왔고요. 지금만 해도 수십 번을 했는데 선언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 양부남 위원 문서로 선언을 해 주시라고.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A를 B라고, 아니라고 하시니까 말이……
- 양부남 위원 아니지. A를 A가 아니라고 하고 계시지, 지금.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그냥 쿠데타는 용납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 선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신다니까 제가 그것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결코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번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의무를 부여받고 있고 그때마다 일부 권력을 찬탈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양부남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내란의 시기 내지는 불법적인 계엄이 시행될 때 늘 군과 함께 동원되는 경찰에 대한 각별한 주의하고 또 민주시민교육, 헌법교육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차장께서도 양부남 위원님의 지적에 빼아프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부산시 중구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선거 준비로 대단히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바쁘실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사실 큰 문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그마한 문제라도 개선해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가능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기본 기조는 22대 국회의원선거 때 저희들이 도입했던 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영상 공개와 함께 수검표 절차를 그대로 지속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전투표제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지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소위 오프라인상의 증거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일단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사전투표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시간당 단위로, 매 시간별로, 사전투표소 별로 몇 명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과거보다는 보다 더 투명하게 실제 사전투표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 밖에 실제 사전투표자 수에 대한 부분을 오프라인 증거로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지금 상정하는 부분 중에서 사전투표자 그러니까 사전투표증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검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들을 고려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은 투표 절차와 개표 절차는 법정사무라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좋은 방안을 더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사실 보안의 문제입니다. 봉인의 문제와 감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CCTV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면 CCTV가 먹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되고, 또 CCTV에 대한 감시 상태가 전 국민한테 공개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선거와 관련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또 봉인지 관리 부분에 관해서도 봉인지 관리에 대한 철저한, 봉인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외 사전투표는 사실 우편 투표제입니다. 사실 투표소에서 개함이 돼서 상자를 통해서 우체국으로 이송이 되고 우체국에서 또다시 개함이 되고 또 도착지 우체국에 다시 모여서 선관위로 다시 들어가고 또 선관위에서 투표함에 들어가는 지금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증거가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사전투표자들이 다 이송이 되는 부분이니까 최소한 관외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등기우편량이 어느 우체국에서 몇 부가 발송이 됐다. 전국 단위로는, 시군구 단위로는 몇 부가 발송됐고 도착지에서는 시군구에 어떻게 도착했다라는 그것을 발표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는 신뢰성 있는 어떤 물리적 증거로서, 최소한 관외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물리적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법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국민들한테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거인명부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소에 가서 선거인의 신분증 내고 거기다가 본인 사인을 해서 선거인명부가 되는데 사전투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제 누가 어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선거를 할지,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교육감선거부터 시작해서 구의원, 시의원, 기관장, 아주 다양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인이 주소지에 있는 이쪽 투표 장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전자적으로는 관리가 되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선거인이 누가 선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전자적으로는 보관이 돼 있지만 사실 물리적으로는 보관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작을 했다, 해킹을 당했다, 중국에서 뭘 했다 이런 엉뚱한 소리들이 계속 나오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투표 일이 끝나고 나면 그날 그 투표소에서 했던 사전투표인명부는 물리적으로(physically) 출력을 시켜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당일 날 해당 사전투표소별로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명부를 출력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전자정보를 불러와서 출력을 하려면 프로그램

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그와 같은 것을 지원하도록 지금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정 안 되면 물리적으로 수기로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 자체가 사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방의회의원들까지 한 선거법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에는 단일선거구제입니다. 단일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의심하게 투표함을 지역으로 보내고 개함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할 게 아니라 투표지에서 그냥 개표하면 된다, 지역적 통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편 봉투를 통해 가지고서 분류해서 추후에 발표하면 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공직선거법을……

○위원장대리 윤건영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조승환 위원 분리해서 분별화하는 것에 대한 선관위 입장은 무엇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선관위에 들어와서 생각해 본 것은 지금 통합선거법이 제정이 되면서 사실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는 그 절차나 그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절차로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대통령 선거는 선거구가 전국 선거구 하나거든요.

○위원장대리 윤건영 총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종합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나중에 시간을 갖고 한번 검토해 보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의 이광희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함께 여쭙겠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번에 영남 지역 산불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정확한 결정은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1조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면적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10만ha 이상입니다, 산림 피해는.

○이광희 위원 그런데 처음에 산림청하고 행안부하고 발표하셨을 때 4만 8000ha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초기에 그랬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변경이, 그것도 10만ha하고 4만 8000ha하고는 2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발표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초기에 화선을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10만으로 얘기됐습니다.

○**이광희 위원** 4만 8000ha면요……

개인적으로 저는 산림학 박사입니다. 산불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지난 10년 동안, 2024년도부터 그 전 10년 동안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이 4만 8000ha입니다. 그 10년 동안 정확하게는 4만 500ha니까. 그런데 이 집계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 끝나고 나서도 집계가 4만 8000ha고 10만ha라고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을 반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4만 8000ha를 화재 진압하는 것하고 10만ha 규모를 화재 진압하는 것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4만ha는 화선에 따른 산불영향구역으로서 관리를 했던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피해 지역인 10만ha가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산불영향구역과 산불 피해 규모가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화선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이가 났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산불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산불입니다. 규모도 그렇고 피해 규모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대 규모예요. 그런데 아쉬운 게 너무 많은데……

이번 저희 누가 하셨습니까, 이번 산불 진화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산림청장이 한 경우도 있고 경북도지사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산불……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난안전법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안부와 총리나 지자체 단체장이 따로 하고 한편으로는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가 산림청장이나 국유림관리소장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산불은 산림청장이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는 2002년도에 강원도 산불에서 전체가 동원이 돼서 이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국가동원시스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너무 아쉬운 게 그게 전무했어요.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헬기 떨어지고 헬기 사고 나고 여기저기 막……

심지어는 아까 말씀 들었는데 강풍 예측 못 했다고 하셨지요? 강풍 예측은 언제 나옵니까? 강풍 예측은 그 전날도 나오고 순간순간 풍속이나 방향 바뀌는 게 계속 나와서 거기에 대비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소방방재시스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중대본 통해서 인적·물적 또 헬기 자원까지 총동원이 이루어졌고요. 현장에서 관리했다는 게 산림청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지휘권에 관한 사항은. 그래서……

○**이광희 위원** 산림청장이 하셨지요, 산림청장?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산림청장, 예.

○**이광희 위원** 산림청장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을 관리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할 수 있었을까요, 현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총괄적으로 어쨌든 산림 지역에 대한……

○**이광희 위원** 그게 가능했다고 보세요, 산림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최선은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한 문제가 아니라 지휘체계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다들 최선을 다했지요. 최선을 안 한 곳이 어디…… 이번만큼 국회에서도 막 쫓아가고, 제가 가 보니까 경북에 있는 정치인들 다 오시고 안 한 사람이 없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형 산불에 대한 전담 조직을, 어떤 식으로든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과거에도 17년, 19년 특대형 산불이 났을 때 소방청과 산림청과의 관계 논의를 조금 했습니다만……

○**이광희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여러 가지 어쨌든 종합적인 산림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도 산림청이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요 이번에 보면서 이게 대통령이 없는 상황, 국가 비상 상황에서 재난도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뚫려 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뭔가 대응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소방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소방청장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번에 국가동원령 내리셨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며칠날 내리셨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22일 날…… 21일 날 경남 산청에서 화재가 나고요. 그날 바로……

○**이광희 위원** 3월 22일과 23일 사이에 전국의 43곳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산불이 납니다. 그렇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나서 바로 내려쳤나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21일부터 바로 내렸습니다.

○**이광희 위원** 소방령으로 되면 경비 부담을 어디가 내는 거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지금 현재 저는 국가에서 지방 자원에 대해서 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옳은 것하고,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현재 저희들 예산이, 25년도 편성된 예산이 한 2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요. 이번에 실제 집행된 것이 제주항공 동원령에서 많이 집행이 됐고……

○이광희 위원 지금 이미 제주항공에서 기존 예산을 소진을 한 상태여서 예산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대책을 어떻게, 국가가 내야 되는 당위성을 있는데 그것 준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정부안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반영됐어요?

○소방청장 허석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광희 위원 안 됐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추경에 반영 안 됐잖아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현재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저는 이번 산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대형 산불들이……

아니, 이미 탄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만한 규모로 또 산불이 날지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번 산불에서 강원도가 단 한 곳도 나지 않았습니다. 매년 나던 산불이 강원도가 0이에요, 0. 이제 탈 게 없는 건지 대책을 잘 세우는 건지.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어떻게 지휘본부를 만들 것이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멍이 났을 때 어떻게 예산을 만들 것이고에 대한 대책이 지금 시급하게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실 건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저희들 소방청에서도 재정 당국과 더 협의를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입니다.

○윤건영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표명해 주셨는데 대통령기록관장 선임 절차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윤건영 위원 선임 절차를 하게 된 배경이 이동혁 관장이 사의를 표명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곧 정년입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PPT를 올려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재임 기간이, 지금 14개월 만에 사임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정년이……

○윤건영 위원 아니, 정년 이전에, 제가 묻는 게. 최근 10년 내 가장 단기로 임기를 하셨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아직 재직 중입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4개월 만에 지금 그만두시는 건 임기가 가장 짧은 거라고요, 이동혁 관장이. 이것 알고 계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윤건영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동혁 관장 임명 당시에 이동혁 관장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당시 심성보 관장에 대한 보복 인사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 알고 있었지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이동혁 관장이 올해 정년이어서 그만둔다고 하면,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윤건영 위원 5년짜리 기관장을 선임하는데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곧 공로연수를 들어가실 분을 임명하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 당시까지는 제가 뭐……

○윤건영 위원 아니, 그 당시……

그러면 이동혁 관장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입니다.

○윤건영 위원 관장님, 사의를 직접 표명하신 것 맞으시지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2년…… 지금부터 14개월 전에 5년짜리 기록관장에 어플라이(apply)를 하시면서 2년 후에 공로연수를 가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밝히신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게 무슨 무책임한 말씀입니까? 5년짜리 기관장을 맡겠다는 분이 2년 후에 정년이 돌아와서 공로연수 간다라는 걸 인추위나 인사혁신처나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논란도 됐고요. 왜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합니까?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아니, 저는 그때는 그 생각까지는 못 했고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은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당연히 그만둘 걸 가정하고 그때도 어플라이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어플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1년 전에는 집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2년 전에…… 14개월 전에 지원하셨을 때 공로연수를, 그만두실 분이 지원하신 거잖아요, 1년 반 있으면 그만두실 분이.

차관님께 다시 여쭐게요.

5년짜리 기관장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당시에 보복 인사라는 논란이 있으면서도?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일반적 공무원의 경우에는 상한 연령이 60세까지입니다. 임기는 5년으로 별도로 있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60세까지입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당시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보복 인사를 감행하신 거잖아요. 그것 인정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심성보……

○**윤건영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분에 대해서는……

○**윤건영 위원** 아니, 지금 있는 이동혁 관장 인사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인정하시냐고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글쎄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윤건영 위원** 왜요? 기관장 임기가 5년인데 14개월 만에 그만두시면서, 본인은 공로연수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인사 관계 법령상 60세까지여서……

○**윤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인사, 첫 매듭이 잘못 꼬여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드러난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차관님.

이동혁 관장한테 여쭙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디올백,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저희가 지금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윤건영 위원** 오늘 현안 질의에 앞서서 용산 대통령실의 기록물 상황 현황을 현장 점검하셨다고 했지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예, 현장 점검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22년에 수령한 거라면 당시에 생산 기록물 현황에 보고돼야 되는 것 맞지요, 관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기록물로 관리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건영 위원 기록물로 관리된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용산에서.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용산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관장님은 대통령기록관 관장이에요. 용산에서 그런 발언을 한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논란이 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디올백인데, 그 디올백의 생산 현황이 보고돼 있어야 되고 이관 목록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물이라고 하고 기록물로 등록을 했다면?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윤건영 위원 참고가 아니라 확인을 했냐고요, 관장님.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아니요, 통보를 받는 것, 생산 현황 통보받을 때는 숫자만 통보를 받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숫자가,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숫자에 디올백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채워져 있더냐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개별적인 사항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건진 목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아 목결이. 이게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2년도에 수령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기록물..... 선물로 받은 거면 기록물이지요, 관장님?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윤건영 위원 답변드리기 왜 곤란합니까? 선물로 받으면 기록물이 맞지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제가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건영 위원 선물로 받았는지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았으면 기록물이 맞냐고 묻는 겁니다. 기록관장이 그걸 답변을 못 하면 어떡합니까?

영부인이 다이아 목결이를 받았다 그리고 그걸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기록물이 맞냐고 묻는 겁니다.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첫 번째는 제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고, 두 번째 특정 물건이 기록물인지 여부는 생산 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윤건영 위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기록관장은 지금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그 자체로 기록물로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물 등재에 대한 주체 책임은 당연히 생산 기관에 있지요. 그리고 그걸 점검하는 건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기록관장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 현장 점검이 부실하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방금 기록관장의 대답의 태도와 내용을 봐도 대단히 부실할 걸로 우려됩니다. 내란에 관한 기록들이 멀실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와중에 굳이 대통령기록관장을 선임해야 합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어쨌든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만 주

신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 선임하시겠습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사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일단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건영 위원 차관님, 여지까지 최근 10년 동안 기록관장이 그만두고 그다음 관장이 임명될 때 최소 오륙 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왜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출속으로 날치 기로 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은 인사예? 기록계에서는 저분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논란도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여러 가지 숙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윤건영 위원 반드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알 박기 인사를 떠난 거고요.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고 은닉하고 폐기하려는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차관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어물쩍하게 그냥 소나기 피해 가듯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위원님들은 면책이 되시지만 저는 국가공무원법에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된 질문이 나오겠지만요. 기록관장 문제, 차관도 마찬가지고 문서를 생산하는 모든 실무 라인도 엄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미 정권이 중단돼 있고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과도기 관리 내각입니다. 엄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그 업무를 처리해야만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책임을 묻고 또 책임을 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이호영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용혜인 위원 두 달 전에 차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박현수, 피의자 전환되면 그때는 바로 인사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피의자 입건 언제 됐는지 기억하시지요? 3월 4일입니다. 언제 인사 조치하실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고발만 되면 피의자가 되는 형식적 피의자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돼야 저희들이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양부남 위원님께서 경찰이 정말 진정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하여튼 협의만……

○용혜인 위원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하시면서 무슨 혁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12·3 내란 이후에 지겹도록 물어봤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임정주, 전창훈, 이현일, 주진우, 임경우, 강상문, 이 사람들은 명백하게 저희 권한과 책임이 있었고 국회 통제부터 체포조 가동까지 위법한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경찰 간부들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직위해제된 사람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금 윤승영 치안감하고 국회경비대장 직위해제했고요.

○용혜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이렇게 넷 제외하고는 현재 직위해제된 사람 없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나머지는 다 인사 조치를 했고요.

○용혜인 위원 인사 조치 어떤 거요? 다른 곳으로 발령 냈다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방으로 발령이나 기획관으로 발령……

○용혜인 위원 그게 인사 조치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단 협의가……

○용혜인 위원 그게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직위해제나 조치하는 것이지……

○용혜인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군 간부들은 기소되거나 전에 다 직위해제됐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내란죄 수사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냐, 내부의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끊어 낼 수 있겠냐, 쇄신할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용혜인 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달째입니까,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단순히 참고인 조사만 받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직위해제나 대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용혜인 위원 지금 박현수 서울청장이 이 자리로 간 것부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도 차장님이 인사 하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결국에는 그렇긴 한데요. 정부 인사이기는 하지만……

○용혜인 위원 그래서 서울청장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책임지는 그런 이상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하도록 협의 입증되면 바로 인사 조치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도 너무나 손쉽게 말을 바꾸고, 제가 군과도 비교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구체적인 협의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 경찰이 정말 아직도 쇄신할 길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박현수 직무대행과 현재……

○용혜인 위원 경찰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 벌써 여섯 번째 발부받았습니다. 근데 내란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가 아직도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경찰이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단 대통령실하고 경호처에서 압수수색을 불승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런데 법원이 그걸 몰라서 영장을 발부해 줬을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용혜인 위원 법원도 형사소송법을 알고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형사소송법상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법원도 형사소송법을 몰라서 발부해 준 게 아니지요, 경찰에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영장이 나왔다는 건 이 사안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을 일차적으로 법원이 한 거예요. 형사소송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 아닙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 자체가 저는 일종의 위헌 상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경호처의 유권해석이 사법부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렇지 않지만 법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안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승낙을 하게 돼 있어서 실무상 거기서 압수수색을 강제하기가 어려워서……

○용혜인 위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경찰청은 보고 계시는 거네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이 보고 안 보고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승인이 돼야 됩니다.

○용혜인 위원 아니요. 형사소송법상 말씀하신 내용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순순히 불승낙 사유서 하나 받아 와 가지고 우리는 이거 불승낙 사유서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압수수색영장 거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다라고 경찰도 동의하신다는 의미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동의하는 건 100%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책임자가 국가안보에……

○용혜인 위원 그러니까요. 압수수색 포기하고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집행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고 비화폰 서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래서 지금 경호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 협의가 별씨 몇 차례입니까? 경호처가 임의제출에 협조할 거다라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근거 없는 믿음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의제출하는 것으

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대통령실에 일주일 넘게 경찰이 지금 시간을 벌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런 건 아닙니다.

○**용혜인 위원** 이거는 명백하게 원칙에 어긋나는 소극적인 영장 집행이고요. 증거인멸 시도를 용납하고 용인하는 봐주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 기간 이달 말까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용혜인 위원** 이번 주 새로 신속하게 영장 집행하고 비화폰 서버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하여튼 국수본에 전달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받도록 신속하게 협의든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든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저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내란에 가담했던 경찰 간부들은 끝까지 품고 가겠다, 내란수괴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들은 가능한 한 늦게 확보하겠다, 이게 경찰의 수장이 국회에 나와서 할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선 이후에 경찰을 쇄신하고 내란 세력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호영 차장도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행안부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용혜인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현금성 복지 폐널티 제도 때문에 85개 시군이 최대 수십 억에 이르는 교부세를 삭감당했습니다. 관리 미흡과 모호한 분류 기준으로 얹을하게 폐널티를 받은 지자체도 상당수가 됩니다. 저는 이 다수의 지자체에서 폐널티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애초에 이 폐널티를 만들 때 제가 한 2년,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애초에 현금성 복지를 할지 말지는 지방정부 고유의 권한이고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검열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제도 도입 초기에 지자체 52곳 중에 3곳 빼고 모두가 다 반대의견 제출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용혜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혜인 위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정부가 그렇게 부자감세 하고 세수 평크 내고 합니까?

저는 야당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에 대한 견제, 정권의 입김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현금성 복지 폐널티는 청년기본소득 같은 풀뿌리 보편 복지정책을

위축시키려는 어떤 의도 말고는 아무런 정책적 효과가 없어요. 합리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고 그 지자체의 피해는 결국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에서 현금성 복지 페널티 제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덧붙여서 억울하게 페널티를 받은 지자체는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혹시 통계적 오류는 없는지 재점검도 좀 부탁드리고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재산정하는 것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교부세 산정은 어쨌든 여러 예산 절차에 따른 것인데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을 지역구로 둔 좋은 사람 조은희 위원입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총장께서는 선관위의 위상이 가장 흔들릴 때 외부에서 구원투수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관악청사에 신원 미상의 5명이 무단 침입한 사건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보통 집에서 강도가 들어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거 언제 경찰에 수사 의뢰하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새벽녘에 보안 담당자가 확인을 한 후에 보고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집에 강도가 들어오거나 도둑이 들어와도 바로 신고하는데 선관위는 저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5명이나 무단 침입해서 화단에 붉은 천 매설하고 막 기이한 행동을 했는데 이틀이나 늦게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대선이 코앞인데 선관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사전투표 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사전투표 때 투표함을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하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이 아니고 규칙입니다, 규칙 86조 10항에 의거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은희 위원** 이 규칙 이런 것 때문에 선관위가 일 열심히 하고도 국민들한테 혼나는 겁니다. 이거 없애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실질적으로는 일반 조항이 아니라 예외적인 특수 상황을 마련한 조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조은희 위원** 없애겠습니까, 안 없애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지금 없애기로 해서 바로 이번 달에 정리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사전투표고 하나는 본투표입니다. 그런데 본투표는 관리관의 도장이 쪽 찍혀 있어요. 사전투표는 인쇄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권자라도 제가 본투표할 때는 관리관이 도장 찍어 주는데 사전투표는 정체 모를 인쇄물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선거법에 이런 거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사전투표를 법제화할 때 그 선거일 투표를 본따서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시행규칙이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런 과정에서……

○**조은희 위원** 왜 법에 정해지지 않고 선관위가 규칙 이렇게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실질적으로는 말하자면……

○**조은희 위원** 아니, 김종양 위원이 투표하시면 인쇄된 투표지에 하고 제가 투표하면 도장 딱 찍힌 데 하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안 고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불공평한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실행이 사실상은 어렵고 불가능하게 됩니다.

○**조은희 위원** 왜 불가능한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저희들이 22대 국선과 관련해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조은희 위원** 빨리빨리 대답하십시오. 뻔한 대답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하나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투표하기 위해서는 그 인쇄 발급기마다……

○**조은희 위원** 대리 지적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총장님은요…… 대통령이 탄핵 당해서 이것 때문에 선관위에 군인들이 주르륵 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고도 지금 1년 전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절차를 바꿔 가지고……

○**조은희 위원** 아니 지금 어렵다, 편리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편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조은희 위원** 그동안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선거관리……

○**조은희 위원** 총선 전에도 이 얘기 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은희 위원** 그러면 법으로 정해 달라고 그러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본투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이거를 규칙 조항을 법으로 옮겨야 됩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 총장님, 본투표도 그러면 인쇄하도록 하라 그러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런 뜻이 아니라 사전투표는 기본적으로 제도가 선거일 투표하고는 다릅니다. 따라서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조은희 위원 총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 못 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조은희 위원 뭘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사전투표 발급기에서 나올 때, 지금 문제는 저희들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면……

○조은희 위원 답이 왜 이렇게 길게 늘어지십니까? 저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본투표하고 달리 사전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오프라인의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는 인정을 합니다.

○조은희 위원 아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뭔가 개발을 해서, 지금 사전투표에는 바코드가 찍혀 나옵니다. 그 바코드를 이중으로 중복해서 출력을 해서 적어도 그 중복된 바코드를 일련번호처럼……

○조은희 위원 그거는 제가 다음에 물으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일단 본투표하고 사전투표가 평등해야 됩니다. 공정한 기준이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시면요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신뢰 못 받습니다.

그다음에, 판사도 하셨지요? 그런데 부동산 관련 소송이 있어요. 그러면 증거물 제출할 때 도장 찍힌 거 인쇄물로 된 거 증거로 받아들이십니까? 실제로 날인된 거 보셔야지 증거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민들이 투표하는 거는 관리관이 인쇄한 거 가지고 인정해야 된다고, 그게 편하다, 복잡하지 않다 그렇게 하시고 1년 내내 그냥 앉아 계시나 이 말입니다. 개선책 가져오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본투표 때는 선거인명부가 있어요. 사전투표 때는 없어요. A씨가 했는지 B씨가 했는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증 뭐 이렇게 스캔해서 서버에 있잖아요. 그런데 본투표처럼 사전투표도 투표한 사람이 누가 누가 누가 했다는 것, 왜 그거를 오프라인에서 증거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안 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다만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원하시는 부분대로……

○조은희 위원 그러면 제가 대신 제안을 드릴게요.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거 제가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사전투표지의 것이 선관위 중앙서버로 갈 때 그 당일 날 투표한 사람들 거 USB로 보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꼬리표 붙여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문제는 각 사전투표소에서는 보안 관계 때문

예.....

○조은희 위원 그거 압니다. 지금 그 대답 하실 거 뻔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정보는 안 되고요. 중앙서버에서 각 사전투표 소별 사전투표자 명단을 USB로 출력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은희 위원 검토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은희 위원 그래야지 투표..... 지금 총장님께서 단위별로, 1시간별로 투표 인수를 하겠다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는 국민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더욱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 대안을 가져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은희 위원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추경예산 얘기할 때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고기동 차관께 지역화폐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입니다.

○박정현 위원 행안부 업무 중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업무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업무가 있는데 왜 지역화폐 예산은 안 만드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어쨌든 재정 관련된 사항이어서 이번에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이 안 되지요. 행안부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방증이고요. 실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지역화폐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아직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인이 지역화폐를 주동하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양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지역화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행안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행안부가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지난 11월부

터 두 달 사이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20만 명이 넘었어요. 이 정부 들어와서 자영업자가 12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리고 자영업자 빚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박정현 위원** 1000조입니다. 1000조에 달하는 빚이 있고요.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다 중채무자입니다. 지금 정부는 ‘민생, 민생’ 하면서 실제로 민생과 관련해서 아무 일도 안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이번 필수 추경의 상당 부분은 자영업자 것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필수 추경에 4조 3000억 정도 들어와 있지요, 민생예산으로?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소비 진작 예산은 1조 6000억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빚 내서 빚 갚으라는 거고요. 소비 진작 예산 중에 상생페이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돈이 있어야지 이걸 사용하지요. 지금 현재 소비자는 돈이 없고 자영업자는 손님이 없어요. 이 악순환을 끊어 주는 것이 실제 민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열심히 그것을 하도록 노력하셨어야지요. 이렇게 정부가 국민의 고통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 위원들께 일단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최소 1조 원 정도는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고기동 차관은 증액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호영 직무대행.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박정현 위원** 선거캠프의 여론조사 비용을 타인이 대납을 했어요. 이거 죄가 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금 법리 검토,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무슨 법리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자료하고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박정현 위원** 선거캠프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게 법리 조사를 할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수본에서……

○**박정현 위원** 지금 정치자금법이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에 관한 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법리 검토를 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관계 자료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뉴스타파 등 언론보도 그리고 공익제보자인 강혜경 씨에 의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금 국민의힘의 예비 대선후보자요, 이분이 명태군 게이트에 깊숙

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 보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봤습니다.

○박정현 위원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에 의하면 21대 총선 때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대납했다고 하고요. 또 최용휘 전 대구시 공무원이 지난 대선 경선에서 지방선거까지 총 열 차례 정도에 걸쳐서 미래한국연구소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인인 박기표 명의로 열두 차례에 걸쳐서 437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 수사하셔야 되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금 국수본에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발인 조사나 관계 자료 분석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사를 위해서 예비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당원명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여론조사에 활용했다면 이게 어떤 죄에 해당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도 아마 법적 위반으로 보이긴 하지만 제가 그것을 입장 발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국수본에서 발표하면 모를까.

○박정현 위원 제가 지금 누가 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수사를 하는 입장이 아닌데 위원님께서……

○박정현 위원 사실만 얘기한 건데, 당원명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여론조사에 활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거지요. 지금 이호영 직무대행께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앞의 내용하고 연결된 내용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잖아요. 제 질문에 답하시면 되지요. 아닙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반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정현 위원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 대납을 한 의혹이 있는 최용휘 전 대구시 공무원이 당원명부를 여론조사 업체에 넘기고 번호 섞기를 통해서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보도에 나온 거지요?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봤습니다.

○박정현 위원 명태군 게이트 관련해서는 지금 창원지검에서 조사했다가 중앙지검으로 왔다가 다시 대구지검으로 갔다가 대구시경으로 간 거 같아요. 이게 무슨 수건 돌리기도 아니고, 서울청이나 국수본에서는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이 대구지검에서 이송 접수한 게 올해 3월 달하고 2월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발인 조사를 거의 하고 있고요. 그 내용도 관계 자료나 이런 것 창원지검에 서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정현 위원 오늘 아침에 홍준표, 박재기, 최용휘, 박기표 등에 대한 고소장이 서울경

찰청에 제출됐어요. 지금 최용휘는 이미 도피하고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아마 대선 끝나고 들어올 것처럼 이야기했다는데요. 이미 조사를 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의 출국 금지를 먼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 경찰이 너무 나이브(naive)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이 빨리 출금을 시켰으면 좋았겠지만 좀.....

○박정현 위원 아니, 좋았겠지가 아니라.....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검찰과 협의하는 과정에 출국 금지를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이트고 더군다나 이게 비상계엄을 유발한 게이트인데 경찰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경찰이 지금 욕을 먹는 거잖아요.

아까 이호영 차장께서 국민의 경찰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구체적인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수본에서 하는 거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

○박정현 위원 지금 국민들은 속도감 있는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사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출국 금지 반드시 바로 시키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국수본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고양갑 김성희입니다.

진화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진화위가 이승만 정권 등이 벌인 우리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감추려고 하고 북한에 의한 민간인 학살 위조, 과거사 정리를 시도하는 등 낡은 이념 전쟁의 첨병 역할을 했다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시니까 제가 통계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조사 종료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지요? 2기 진화위 실적을 한번 보시지요.

적대세력 사건 같은 경우는 진상 규명률이 7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적대세력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 인민군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적군에 의한 사건 같은 경우는

진상 규명률이 75%인데 군경 사건은 어떻지요? 보시는 대로 53%, 형편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몰려드는 사건 중에서 진화위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유형별 미종결 사건의 비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종결 사건이라면 아직 종결이 안 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군경 사건 즉 우리나라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의 미종결 사건 비율은 22%에 달하는 반면 적대세력 사건은 5%로 매우 적습니다.

군경 사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율에서 매우 차이가 나는 것만을 놓고 봐도 2기 진화위에서는 굉장히 한쪽으로 몰아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저는 온 지 이제 5개월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통계는 전체 통계 속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은 신청 건수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군경에 의한 건수는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적대세력에 의한 것은 적습니다, 신청된 건수 자체가요. 이 문제를 해결……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까 사건이 많이 접수된 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원을 더 많이 배정해서 처리율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그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군경에 의한 건수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처벌자 그러니까 처형자 명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법무부에서 나온 것도 있고 국방부에서 나온 것도 있고 자료가 많은데 적대세력에 의해서 희생이 된 건들은 사실은 그것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항상 똑같습니다. 저희 인원이 똑같고, 건수는 아시다시피 전체 건수가 2만 건이 넘습니다. 1기 때는 1만 건 정도였어요. 그래서 신청 건수 자체가 2배가 넘어서 어떤 특정 사건에 많은 신청자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몰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들어온 건수로 보면 사실은 삼청교육대 그다음에……

○**김성희 위원** 제가 충분히 답변드릴 시간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금 줄여서 해 주시면 상호 간에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거의 1분 넘게 혼자 말씀하시는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그러니까 다른 형제복지원이라든지……

○**김성희 위원**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정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그러니까 건수가 이게 상대적으로 많은 건이 아니어서 다른 부처에서 일하는 직원을 이쪽으로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제가 짧은 시간에 질문을 하는데, 어쨌든 발언 시간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1분 30초 넘게 혼자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질의를 드릴 시간이 없어서 토론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근거를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광동 전 위원장이 했던 발언 보시면 2주년 기자간담회 때 ‘부역자를 가리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해 빨갱이들이 섞여 있는지를 보겠다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그다음에는 또 23년 6월에 영락교회 조찬 강연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 더 고귀하고 선보상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서 1인당 1억 3200만 원 보상해 주는데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 이렇게 본인이 아주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고요.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불법 희생이 아니라 전쟁 중에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특히나 5·18에 대해서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제가 질문하는 데 했었는데 5·18 발언은 저는 특히 충격적이었는데.

위원장님, 어찌십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진화위원장으로서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제 발언도 아니고요.

○**김성희 위원** 그러면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5·18 민주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여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김성희 위원** 잘 모르는 정도의 그런 역사적 인식과 소명 수준으로 위원장을 하신다는 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제가 잘 모른다는 말씀은요……

○**김성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5·18민주화운동 기념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심지어 양당이 동의하는 가운데 5·18 민주항쟁이 헌법전문에 들어간 내용인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님이 5·18의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면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부끄러운 얘기니까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아니요, 답변을 드릴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옥남 상임위원, 조사1국장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학살자유족회가 시위·농성을 하니까 정신적인 상해를 입었다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가 하면, 이 부분이 특히 놀라운데 25년 2월에 나온 얘기인데 이옥남에 의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최소한 345건이 방치됐다는 진화위 공무원노조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남·전북 지역 학살 사건은 319건이 보류됐고 경남·경북 지역 사건은 15건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국군, 경찰 등에 의한 학살 사건은 331건이 보류가 됐고 좌익이나 인민군을 일컫는 적대세력에 의한 학살 사건은 14건밖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통계대로 이옥남 이런 분들이, 상임위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건 위주로 처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고.

특히나 놀라운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맨 황인수 조사1국장 한번 보시면요, ‘재심 무죄를 받은 진도간첩단 사건은 조작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국정원 간부가 하는가 하면 또 ‘희생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없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진화위가 지금 2기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

는가. 저는 존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위원님, 늘 저희 위원회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5·18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모른다라는 말씀은 5·18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을 한 김광동 위원장이 어떤 의도로..... 그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김성희 위원** 제 질문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역사적 인식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부끄러운 줄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답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희 위원** 주시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김광동 위원장이.....

○**김성희 위원** 김광동 위원장 빼고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른다라는 답변을 드린 거고요.

○**김성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시간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마음대로 답변하시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이 옥남 위원하고.....

○**김성희 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5·18 얘기 하시고 그 얘기 아니면 하지 마세요.

.....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아마 진화위원장이 답변을 그 부분을 못 하셨는데 5·18의 발생 과정에서 북한의 역할이 있었다, 북한군의 조정이 있었다 등등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진화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그 질문이라면,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뭔 말이야, 그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제가 모른다고요, 그 부분은. 그런 논란.....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성곤 위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하세요, 알려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요.

○**김성희 위원** 국가가 이미 민주항쟁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발언을 하니

까 그따위 역사 인식으로 여기 앓아 있는 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김 위원님, 그런 논란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사실은 제가 모른다고요.

○김성희 위원 가치가 없습니다! 논란이라니! 북한군 개입은 논란이 아니에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확인을…… 모른다고요. 사실 여부를 모른다고요, 제가.

○김성희 위원 그만하세요!

○용혜인 위원 그러니까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국민들 다 알아요!

○위원장 신정훈 자, 자……

○김성희 위원 아니, 저런 사람을 앓혀 놔도 됩니까, 지금?

○김종양 위원 질서를 지켜 주세요.

○박정현 위원 무슨 예의를 지킵니까, 저런 사람한테?

○용혜인 위원 누구한테 예의를 지켜요? 5·18 희생 영령들한테 예의를 지키세요!

○위원장 신정훈 자, 제가 좀 한번……

○김종양 위원 질서를 좀 지키자고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5·18에 대한 역사적인 발생 배경이나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지금 헌법에만 담지 않았지 이미 명백하게 북한군 외부 소행이 아니라 국가의, 우리 내부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역사다 이런 정도는 인정하시잖아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런데 제가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해서 진화위원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이상을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5·18에 있어서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인 규명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런 정도의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는 문제,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설마 그렇게 답변하실지 몰랐어요. ‘김광동 위원장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한다’ 이런 정도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고 진화위원장으로서 5·18민주화운동에 있어서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명백한 거짓이지요. 역사적인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대한민국의 교과서에도 이미 다 명백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앓아 있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진화위원장이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그것 다 이미 규정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답변은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박정현 위원 왜 논란이 있습니까, 그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저는 모릅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만하세요! 논란이 정리됐다니까요!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정리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역사적 진실을 가지고 진화위원장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 자초하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존경하는 위원장님, 5·18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경종 위원 무슨 논란이 있어요?

○위원장 신정훈 북한군의 개입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이 역사적 진실과 거리가 먼……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논란이 있다는 건 안다고요.

○위원장 신정훈 진화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아니, 논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요. 제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변을……

○위원장 신정훈 진화위원장.

○모경종 위원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정춘생 위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게 역사적 진실이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진화위원장.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그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도를 달리할 수 있어요.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종료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시라는 분이 이 자리에서 ‘그건 아직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명확히,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있어서 북한군의 개입에 의해서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했다라는 류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문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논란 중인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제가 모른다고요.

○박정현 위원 무슨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정춘생 위원 논란을 일으키는 거지요! 진실을 왜곡하고!

○박정현 위원 아니, 나치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정춘생 위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게 역사적 진실 아닙니까? 진화위원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글쎄요, 저는 아까 이 질문의 출발이 지나간 위원장님, 전 위원장님의 발언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제1상임위원 그리고 제1국장에 대해서 하시다가 5·18을 물으셨어요.

○위원장 신정훈 조용히 하세요. 그만하세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이상식 위원 위원장님, 퇴장시키십시오. 더 이상 답변을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퇴장시키십시오.

○정춘생 위원 오늘 왜 출석시키신 겁니까, 오늘!

○위원장 신정훈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제가요 참 윤석열 정권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사의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표준, 표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처음에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경고를 했고 또 오늘도 제가 인사를 시키면서도 최소한의 그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제가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 완곡하게 말씀드리는 데도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그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어요. 퇴장해 주세요. 퇴장해 주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퇴장 명령을 저한테 하실 수는 없는 것으로 암니다. 국회법상 지난번에 저를 강제 퇴장시키셨지만……

○위원장 신정훈 퇴장해 주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그 권한이 위원장님께는 없습니다, 국회법상.

○위원장 신정훈 아니, 아니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그리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모르면서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채현일 위원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최소한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제가 먼저 이것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정리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김종양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 신청이 있으니까……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국회법 제145조에 의해서 위원장은 이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퇴장해 주신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리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 듣고 간사 간협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자, 국회 경위 나와서 퇴장시켜 주세요.

○**김종양 위원** 질서 유지하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만희 위원** 이게 무슨 질서 유지하고…… 발언 내용이 동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원장을 그렇게 퇴장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김종양 위원** 그렇게 누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배준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국회법 145조에 참고인을 퇴장시킬 명령은 위원장에게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것은, 진화위원회의 역사적 인식은……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상의하고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가만 있으세요. 가만 있으세요.

○**김종양 위원** 맨날 독재, 독재하면서 말이지 위원장이 그렇게 독재를 해도 돼요? 마음대로 그래요!

○**박정현 위원** 아니, 무슨 독재를 한다고 그래요?

○**위원장 신정훈** 가만 있으세요!

○**김종양 위원** 어떻게 가만 있으라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 가만 있어야지.

○**배준영 위원** 아니,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 신정훈** 가만 있으세요.

저는요 이 정도는……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 신정훈**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간사님들끼리 상의 다 하시고 잠시 정회해서 시간 가지고 하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이만희 위원님.

○**김종양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주실 수 있지요!

○**이달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줘야지요.

○**배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시라고요.

○**이만희 위원** 아니, 우리가 무난하게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이만희 위원님, 저는요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배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시라고요!

○**김종양 위원** 아니, 원하는 답변 안한다고 퇴장시키는 게 정상적인 의사진행이에요?

○**용혜인 위원** 이게 원하는 답변의 문제입니까,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는 것 운운하는 게?

○**정동만 위원** 그만 좀 하세요!

○**용혜인 위원** 뭘 그만해요! 그만은 저런 사람들이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정동만 위원** 뭘 그만해!

○**용혜인 위원** 저런 사람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앉아 가지고……

○**이달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줘야지.

- 배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시라고요! 왜 안 들으세요?
- 위원장 신정훈** 그만하세요! 회의 진행할게요.
- 배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세요!
- 위원장 신정훈** 드릴게요. 드릴게요.
- 용혜인 위원** 위원장님, 퇴장시켜 주십시오!
- 김종양 위원** 위원들이 설득력 있게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야지 말이지. 그런 식으로 누가……
- 위원장 신정훈** 김종양 위원님!
- 이달희 위원**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양 위원** 이야기하세요, 그래!
- 위원장 신정훈** 발언권 좀 받고 해요!
- 김종양 위원**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이게 뭐예요!
- 위원장 신정훈** 그만해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 박정현 위원** 뭘 제대로 운영을 안 했어요?
- 모경종 위원** 지금 하시잖아요. 지금 이만희 위원님한테 드린다 하잖아요, 김종양 위원님.
- 김종양 위원** 뭔 이유로 그리 퇴장 명령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퇴장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신정훈** 아무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 김종양 위원** 국민의힘이고 뭐고 의사진행을 갖다가, 위원회 진행을 갖다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 용혜인 위원** 이게 원하는 답변의 문제입니까, 김종양 위원님?
- 위원장 신정훈** 지금 제가 원하는 답변 아니지 않습니까.
- 용혜인 위원** 위원님도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신정훈** 그만하세요.
- 이달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 위원장 신정훈** 예, 의사진행발언 드릴 테니까요 제가 위원님들……
- 김종양 위원** 입만 열면 독재, 독재 하는 사람이 말이야. 여기에서는 본인은 당장……
- 모경종 위원** 들어 보십시오. 김종양 위원님, 정리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신정훈** 독재, 독재 말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 용혜인 위원** 이게 원하는 답변의 문제냐고요.
- 위원장 신정훈** 충분히 이해했고요. 또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인내하고……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소위 말해서 최소한의 역사 인식은, 우리 국민 일반이 인정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완곡하게, 또 기회를 드리고 했는데 지속적 으로…… 개인의 신념은 그럴 수 있지만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회에 출석해서 할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국민의 국록을 먹는 국가공무원 으로서, 특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퇴장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책임질 테니까요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해 주시고 다른 방식으로, 폐북에다 쓰시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여기서는 더 이상 위원장이……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퇴장해 주세요.

○이상식 위원 나가세요.

○정동만 위원 우리도 퇴장합시다.

○조은희 위원 저희들 퇴장하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퇴장을 저한테 명하실 권리가 없으십니다. 그 권한이 없으십니다.

○박정현 위원 왜 권리가 없어요?

○배준영 위원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국회법 145조는 국회의원들을 퇴장시킬 수는 있어도 참고인을 퇴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달희 위원 의사진행발언권을 왜 안 주십니까?

○위원장 신정훈 먼저 퇴장하고 드릴게요.

○이달희 위원 우리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달라 하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조승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시지요.

○이달희 위원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사진행의 절차를 얘기하는 건데요.

○위원장 신정훈 경위, 퇴장시키세요.

○이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번도 안 주시고 일방적으로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달희 위원 얘기 좀 듣고 하시면 되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권한 없습니다. 불법적인 권한 행사에는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국회 145조 가져와 보십시오.

○이만희 위원 아니, 손대지 마세요, 위원장님한테! 여기서 그냥 완력으로 끌어내려고 그래요? 나와요, 이리로!

○용혜인 위원 뭘 끌어내요?

○이만희 위원 나오시라고요, 이쪽으로!

○위원장 신정훈 국회 경위, 국회법……

○용혜인 위원 화낼 거에는 화 안 내고 화 안 내도 될 거에는 이렇게 화내시고.

○이만희 위원 아니, 충분히 의사진행발언 들으시고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정회한 후에 하셔도 되잖아요, 어떻게 결론 나든 간에! 아니, 본인의 의견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정훈 이만희 위원님, 이 논란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 논란을 충분히 했어요.

○이달희 위원 아니, 무슨 얘기 할 줄 알고! 우리는 의사진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내용을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혜인 위원 회의 진행에 대한 권한은 위원장님에게 있습니다.

- 박정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 이달희 위원** 아니,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못하게 한 거잖아요.
- 용혜인 위원** 내보내고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제가 여러 차례 기회를 드렸고요.
- 이달희 위원** 언제 주셨어요?
- 위원장 신정훈** 아니에요. 아니에요.
- 박정현 위원** 왜 못하게 해요? 의사진행발언하시라고 하셨는데 하시면 되지.
- 용혜인 위원** 내보내고 주신다고 하셨어요.
- 위원장 신정훈**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발언이 지금 진화위 위원장의 입에서 나왔어요. 지금 역사의 그 수많은 광주시민들의 피 흘림을 또다시 국가공무원의 이름으로 모독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해명할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위원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최소한 진화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퇴장할 것을 명령하고요. 빨리 좀 자연스럽게 퇴장해 주세요.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불법적인 퇴장 명령에는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 모경종 위원** 불법이 아닙니다.
- 박정현 위원** 뭐가 불법이에요?
- 위원장 신정훈** 자, 국회 경위.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그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을 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됩니까?
- 용혜인 위원** 어디다 대고 불법을 운운하세요!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제가.
- 위원장 신정훈** 국회법 제145조에 의해서 퇴장을 명령하니까요 조치해 주세요.
-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145조에 참고인을 퇴장시킬 권한이 없으십니다.
- 이만희 위원** 손대지 마세요!
- 용혜인 위원** 질서유지권이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 모경종 위원** 왜 참고인이세요, 또 갑자기. 갑자기 참고인이라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 박정현 위원** 왜 참고인이에요?
- 모경종 위원** 의사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 이만희 위원** 뒤에 경위들 나와 주세요.
- 채현일 위원** 이만희 위원님이 판단하실 일 아닙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145조 가져 오십시오.
- 이만희 위원** 경위들 나와 주세요, 이쪽으로.
- 위원장 신정훈** 먼저 집행하세요.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아니요.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다.

○정춘생 위원 원래 진화위원회 출석 대상 아닌 것을 왜 출석을 시키신 겁니까, 오늘?

○이만희 위원 오늘 왜 이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정춘생 위원 우리가 내란수괴가 임명한 위원장 인정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오늘 왜 출석시키신 겁니까?

○위원장 신정훈 145조하고요, 49조 1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지난번에도 145조에 따라서 저를 강제 퇴장 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고 읽어 봤습니다. 저한테 퇴장 명령을 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자, 49조 1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아니요.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게 질서유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질서유지도 아니고 발언 내용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조승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들으시고 한 다음에.....

○위원장 신정훈 제가 쫓아가서 퇴장시키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조승환 위원 아니, 협의해 가지고 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자, 49조 1항.....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국회법 49조 1항 그리고 145조에 의해서 퇴장을 명령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퇴장 명령 권한 없습니다. 그 조문 읽어 보십시오.

○정춘생 위원 권한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자, 국회 경위.

○용혜인 위원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박정현 위원 아니, 이 회의의 의장이 왜 권한이 없습니까, 위원장이?

○모경종 위원 마이크도 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자, 마이크 끄세요.

○박정현 위원 진짜 이 정부는 도대체 어떤 인사들을.....

○위원장 신정훈 그게 정권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개인의 신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모르는 걸 모른다고 답변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모르니까.....

○정춘생 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된다고요.

○모경종 위원 그걸 모른다고 답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정춘생 위원 가서 풍선 날리든 무슨 일을 하십시오.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하던 일 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저는 풍선하고 관련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자, 경위.

○이만희 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손 대지 마십시오, 몸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불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그분들한테도 없습니다.

○정춘생 위원 불법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누가 해석하는 겁니까, 불법 여부를.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은 앞을 보시고요.

경위님, 손 대지 마십시오, 몸에는.

○이상식 위원 손 안 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채현일 위원 이만희 위원님이 왜 관여하세요, 그것을. 위원장님이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불법적인 명령에는 저는 따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승환 위원 의사진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무조건 불러 가지고 위원회에서 무조건 퇴장시킨다는 것은 아니지.

○채현일 위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만희 위원 아니, 본인들의 의견하고 다르면 충분히 여기 간사 제도도 있는 거고 의사진행 관련해 가지고 빨언 달라면 당연히 주셔야지요, 위원장님이 하신다면.

○조승환 위원 간사 간에 이야기해서 하면 되지요.

○박정현 위원 나치가 민주주의자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승환 위원 아,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박정현 위원 뭐가 달라요,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정춘생 위원 북한군 개입 논란으로 얼마나 큰, 희생자들이 그동안 상처받아 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논란 있어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조승환 위원 아니, 그것은 의사진행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정춘생 위원 진화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박정현 위원 왜, 그게 무슨 의사진행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조승환 위원 간사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서 결정 내면 따르잖아요.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께서 독단적으로 하시니까,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시고 독단적으로 하시니까 지금 이 사달이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주신다고 했어요. 위원장이 일단 퇴장하고……

○이상식 위원 위원장이 독단적이지 어떻게 우리 위원장이 독단적입니까?

○위원장 신정훈 자, 퇴장하고 나서 위원 발언……

○조승환 위원 간사 간 협의해서 정회해서…… 위원장님.

○이만희 위원 퇴장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것을 퇴장을 시켜 놓고 의사진행 발언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신정훈 이만희 위원님, 광주민주화운동은 윤석열 대통령마저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약속했던 내용이에요.

○조승환 위원 실체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아니요.

○조승환 위원 여야 간의 의사진행과 정부 측 출석 인사 퇴장하는 거에 대한 건데……

○용혜인 위원 아니요. 위원장의 이야기는 실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상식 위원 실체에 관련된 이야기 맞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5·18 자체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 신정훈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모경종 위원 하나도 안 멋있어요. 정말 하나도 안 멋있고 하나도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고결해 보이지도 않고 고고해 보이지도 않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고.

○박정현 위원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제가 무슨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위원장 신정훈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나 역사적 실체, 진실은 이미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여러 차례 선거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성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를 테면 2024년 5월 18일 대통령실의 발표에 의하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역사적인 인식, 국민들의 합의를 계속 왜곡하고 피해자 광주시민을 모독하는 그런 박선영 위원장의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의 자격 그리고 이 자리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주장을 강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가, 국민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퇴장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비슷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제가 5·18 정신을 부인했습니까?

○박정현 위원 5·18 정신을 훼손했지요.

○위원장 신정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회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회의 과정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회의장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공무원이라든가 이 자리에 출석하신 증인들 처지에서는 최소한의, 특히 국가공무원으로서 답변석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는 최소한의 본인이 직무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선영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품위 그리고 최소한의 인식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퇴장을 명령하고 있는데 여전히 명령을 거부하고 국회의 권위를 또 질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장의 퇴장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제가 모른다고 한 것은 5·18을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정훈 제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고 했고 그리고……

○위원장 신정훈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5·18을 모른다는 그 발언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물었듯이, 이미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듯이 그리고 이미 학문의 현장에서, 법률의 현장에서, 정치의 현장에서 논란이 되었던 5·18의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객관적으로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의됐습니다.

그 사실조차를 저는 모른다고 계속하시는 박선영 위원장의 인식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고 진화위 위원장으로서는 더더욱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5·18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 안다를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국회 회의 질서를 방해하시려면 계속하세요. 국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으니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정훈 예.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린다는 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반대편 자리에 앉아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질서유지권 부분에 대해서 질서유지권이 위원회에서 불러들인 기관증인을 퇴장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까지 포함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을 국회 경위로 하여금 퇴장하도록 강제집행까지 요청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여야도 없고 국회와 정부가 운영되고 서로 상호관계에 상호작용을 해 가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진화위 위원장님의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령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서 퇴장을 명한다라는 것은 사실 저 좌석에 앉아 있는, 정부 측 대표로서 앉아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겠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입을 막아 버리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평소에……

○김종양 위원 (손을 훑)

○위원장 신정훈 그 정도로 하시지요.

○김종양 위원 아니, 저 의사진행발언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하세요.

○김종양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렇게 우리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법상 위원장의 직무에 질서유지의 어떤 그런 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박선영 위원장이 위원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질서를 해한 것이며 그런 이유로 퇴장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자의적으로 그렇게 법을 해석하려고, 규정을 해석하려고,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탄핵을 주장하잖아요. 그분도 합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질서유지하고 중인의 어떤 발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지적 수준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런 분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왜 그 정도의 상식도 갖추지 못했느냐 이런 질타는 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그런 이유로 질서유지권을 내세워 가지고 퇴장 명령을 한다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퇴장 명령을 한 걸 철회를 하고 다른 사유로 이석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왜 위원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위원회의 회의를 갖다가 이렇게 부적절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퇴장 명령을 취소를 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진화위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자발적으로 이석하도록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그러면 앞으로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이유로 퇴장 명령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신정훈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정성을 다해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으로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의적으로 퇴장 명령을 하셨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보고 계시고 온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논란은 그냥 어제오늘 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지요. 정치적으로 공방도 있었고 주장도 있었고 파동도 있었고…… 그렇지만 명백히 계엄을 불법으로서 내란으로 규정한 현재의 판결처럼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이미 규정된 기본 상식, 국가공무원으로서 기본 인식,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기본 책무 이런 것들에 비춰 봤을 때 대단히 부적절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마음에 들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보편적 민주 시민이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그런 발언을 진화위원장이 하셨어요. 제가 굳이 그것을 다시 동영상

으로 틀어서 리바이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진화위원장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철회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하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판명된 사실이고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조승환 위원 말씀 거꾸로 하셨어요.

○위원장 신정훈 아니요, 그러니까요.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규명이 끝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이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이야기고 윤석열 정권마저도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정신에 담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내용이에요. 이 논란을 가지고 더더욱 서로 공방하는 건 맞지 않아요. 학문적으로, 박선영 위원장이 퇴임하셔서 주장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공무원으로서 진화위원장으로서 그 이야기는 취소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우리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저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을 하는 것고요.

○위원장 신정훈 예, 됐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지난번에도, 12월 23일에도 위원장님은 저를 불법적으로 퇴장시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훈 됐습니다.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뭘 사과를 해요, 뭘요?

○조은희 위원 가만히 계십시오.

○박정현 위원 가관이구먼, 아주 가관이야.

○위원장 신정훈 됐습니다.

우리 저……

○조은희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병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몇 번 하시는 겁니까?

○정춘생 위원 회의 진행합시다.

○이상식 위원 질의합시다.

○조은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춘생 위원 소중한 시간을 정말 아깝네요, 정말.

○조은희 위원 한병도 위원님 좀 가만히 계셔 주세요.

○한병도 위원 아니, 가만히…… 지금 세 분 계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의 사전 합의와 다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는 진화위원장님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언 내용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 준엄하게 위원장님께서 한말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위권,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퇴장하라고 명령하신 것

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님 좌석에 가서 정회 좀 하자고 했고, 정회는 국회법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 국민의힘은 산불 관련해서 현안 회의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진화위에 대해서 더 이상 현안 질의가 없으면 이석하고 저희들이 재난에 대해서 국가가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지혜를 모을 수 있을까 하는 현안 질의를 계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서 잘 가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말씀 중에 ‘위원장이 정부 측의 인사를 퇴장 명령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국회법에 대한 아주 협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구성원인 위원회의 위원들도 퇴장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회의의 중인으로 출석한, 정부 관계자로 출석한 사람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든가 회의 질서를 문란히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의사진행을, 질서를 정리할 그런 권한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퇴장 명령이 결코 위원장의 직무에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진화위원장께서 지금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극구 방해하고 계시므로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화위에 대해서는 이 현안 질의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화위원장은 지금 당장 일어나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진화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다고 하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강제 퇴장시키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진화위원장님, 더 이상 현안 질의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강제 퇴장할 만합니다. 강제 퇴장해야지요.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이 진화위원장 하는 걸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퇴장이 아니고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우리 현안 질의가 없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시지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회의장에서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퇴장 명령을 받으신 거예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그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은.

○박정현 위원 뭘 권한이 없어요?

○정춘생 위원 권한이 있다니까요.

○모경종 위원 권한이 있어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없습니다, 없습니다. 법조문 읽어 보세요. 없습니다.

○**용혜인 위원** 본인이 광주 영령들한테 사과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걸 모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했을 뿐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아무한테나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모경종 위원** 진화위원장이라고 그렇게 아무 이야기나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용혜인 위원** 진화위원장은 아무 말이나 하면 됩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모르는 걸 모른다고 했을 뿐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들 잠깐 발언 좀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인격권 모독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인격권을 전혀……

○**위성곤 위원** 모르면 부끄러워해야지. 모르는 게 너무 당당하잖아.

○**용혜인 위원** 광주를 모욕하지 마세요.

○**위원장 신정훈** 용혜인 위원님 잠깐만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지금 배석한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공무원들 충분히 존중합니다.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본인의 소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회의의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될 권한은 위원장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국회법에 있습니다. 위원들만 퇴장시킨다, 위원들에 대해서 제지한다, 이게 아니라 배석해 있는 정부 측 관계자 누구라도 이 회의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제지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기어코 그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신다면 무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을 제가 받아들여서 진화위에 대해서 더 이상 현안 질의가 의미가 없으므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 주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현안 질의가 없다면 떠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정춘생 위원** 아니야, 의미 없어.

○**위원장 신정훈** 다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예, 진행해 주십시오.

앉아 있든지 가든지 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진화위에 대해서는 현안 질의가 없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만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 나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요, 있으라고 하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하니 이석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요? 할 수도 있는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하십시오, 그러면.

○**한병도 위원** 그러면 앉아 계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예.

○**이만희 위원** 왜 그러세요, 한병도 위원님, 좀. 일어서려는 분한테 또 왜 그래.

○**한병도 위원** 나 진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배준영 위원**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위원님.

○**박정현 위원** 여야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런 사람을 진화위원회에 우리가 했다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거야, 아마.

○**한병도 위원** 정말요 이건요, 위원님들,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말 5·18에 대한 공감대, 최소한의 이런 게 있다면요, 국가기관 대표로는 이건 아니에요. 정말 이건 아니에요.

○**배준영 위원** 질의하세요.

○**조은희 위원** 질의하시고, 그러면 퇴장 명령도 없는 겁니다, 계속 계시니까.

○**용혜인 위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의 퇴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고발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질의하시라고요.

○**조은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 말씀의 권위를 잃는 겁니다.

○**한병도 위원** 소리 지르지 마세요, 진짜. 5·18 가지고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당 위원님들도! 이런 문제를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5·18 문제는요, 최소한의 공감대가 있다면 제발 이러지들 좀 마십시오.

○**배준영 위원** 질의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질의하시라고요.

○**한병도 위원** 북한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최소한 인간에 대한 공감대 좀 가지세요, 제발 좀!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이 북한군하고 관계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김종양 위원** 누가 북한군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승환 위원** 한 위원님, 그건 다 동의합니다.

○**한병도 위원**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위원님들도 나무랐어야지요.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 아니,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병도 위원**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아니, 제가 언제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했습니까?

○**용혜인 위원** 그만하세요!

○**이광희 위원** 그만하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박정현 위원** 그만하십시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국회의원이라고 정부 요인들 불러 놓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소리 지르지 마세요.

- 모경종 위원** 정부 요인이라고,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 이만희 위원** 막말하지 마시지요, 뚫린 입이라니요.
- 모경종 위원** 뚫린 입이지요, 그러면 지금 저 분이 하는 말이 더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 박정현 위원** 뚫린 입이지 그러면 막힌 입입니까?
- 용혜인 위원** 광주에 대해서 막말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그렇게 모욕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신정훈** 제가 이석해 달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이석해 주세요.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아니, 질문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질문이 있다고 한병도 위원이 그러십니다.
- 위원장 신정훈** 이석해 주세요, 그냥 의미가 없다고 제가 판단해요, 제가. 회의는 제가 진행합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질문이 없다고 하면 나가겠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해서 앉았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회의는 제가 진행한다니까요.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질문이 없으십니까?
- 위원장 신정훈** 회의는 제가 진행해요!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질문이 없다고 확실하게 하시면 가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니까요.
- 진화위에 더 이상 질의가 의미가 없으므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박선영** 예.
- 위원장 신정훈**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만희 위원** 경북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국회의원입니다.
- 김용빈 사무총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지금 보강을 한다, 바코드를 개선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총장님하고 저하고는 벌써 수년째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있는 사전투표 시 관리관의 날인 표시 부분들은 그냥 법 규정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 또 한 가지, 여기 선거인명부 사전투표 표시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으로 선거 투표의 정확성을 아니면 외부로부터 어떤 침입을 막아 낼 수 있는가 그런 걸 고민해 주시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는 그동안에 총장님도 많이 동의를 하셨잖아요.
- 오늘 답변에서 무슨 바코드를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시니까 제가 가슴이 좀 막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답답하시겠지만, 그게 대부분 선거 절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상으로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요. 지금 현재 대선과 관련해서는 입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라도 저희가……

○이만희 위원 어쨌든 그 결정사항들을 우려사항을 아시니까 그 방식대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더 아날로그적인 사항을 도입해서라도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대행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산불 발생하고 난 다음에 약 한 달가량 지났습니다. 아마 대부분 피해 현황은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사망 31명을 포함해서 인명피해가 83명, 이재민이 한 3560명 정도 그리고 산불 피해 면적이 10만ha 정도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동안에 제가 우리 당의 산불특위 위원으로서 여러 차례 우리 대행도 만나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중에서 과연 사망자라든지 유족이나 이재민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지원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분들 실질적인 지원이라 하면 어쨌든 이재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좀 옮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이 현안 질의 준비하면서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지원 사항에 대해서 좀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나중에 받으셨을 거예요, 대행님도. 처음에 답변은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지원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재민들이 다 알다시피 그냥 맨몸만 나오신 분이잖아요.

오늘 한덕수 대행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책이라는 것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정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 그 말씀 다 오늘 대행 시정연설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만희 위원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여러 가지 지금 의사결정은 돼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재민들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산불 관련해서 정부 전체 추경이 약 1.4조 원 정도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1.4조 원입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행안위 소관이 6786억,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만희 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 중에 지금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규정은 됐지만 여기에 이루어지는 시설 복구에 대한 정부의 부담률을 좀 높여 달라는 거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를 하셨지만 자연 재난에 비준했을 때 관련되는 어떤 지원 자체가 많이 모자라잖아요. 특히 주택 지원금 같은 거라든지 또 농기계·농축산 시설이라든지 대파비라든지 가축 입식비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법이 지금 제출은 되어 있는데 한번 간

략하게나마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뭐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기준보다 전례들을 굉장히 고려해서 충분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좀 긍정적으로 신속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산불 피해 지역이 경남까지 포함하면 9개 군 내지는 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만희 위원** 거기에 보면 이재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긴급구호자금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농업 같은 것들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번 추경에서는 이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됐거든요.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봄도 이걸 최저시급을 적용해 가지고 최소한 7개월 정도는 이재민들이나 이런 피해를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형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 관련된 예산이 한 7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200억 정도 나온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소위 때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 부분들은 이번에는 추경예산에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26년도에는 이게 국비로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번 복구는 그냥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지방 소멸을 예방하고 새롭게 중흥시킬 수 있는 실질적 복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100% 동의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 점에서 지방 소멸 방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그런 지원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아니면 도 단위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 그런 권한을 이양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묻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번 재난 복구 과정에서 아마 산지 같은 데 지금 법규랑은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 보시고요. 이 내용들이 특별법 내용에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번 점검하여 가지고 보고를 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서 월급 받고 있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 이 자리에 와서 다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와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박선영 위원장을 저런 발언을, 책임도 지지 못 하는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여러 가지 행위 양태가 있겠지만 발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이라면 그런 발언을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5·18 때 전남대 학생으로서 5·18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낳은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5·18 때 계엄군에 맞서고 군부독재에 맞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가,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디 그런 망발을 합니까?

개인 자격으로 말하는 건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로서 백 번, 천 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고 정말 전 국민이 그리고 법으로 그 아픈 역사를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복이라면 그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라도 듣고 있으면 박선영 위원장님, 반성하시고 본인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예, 대통령기록관장입니다.

○모경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생산된 기록물들이 민주주의 질서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헌정 안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는 동의하시지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예,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맞지요? 대통령의 기록물은 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예.

○모경종 위원 단순한 대답을 여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나 계엄 회의록이나 대통령실 자료 이관 등의 이런 민감한 기록들에 대해서 이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 상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록원장으로서 한마디 해 보시지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일단 현장 점검은 갔었습니다. 갔었고요. 어쨌든 재분류 금지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관될 기록물들의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경종 위원 현황 파악을 하셨다 그리고 현장 점검을 하셨다 정도로 지금 대답하시고 계시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정말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에 임하시겠습니까?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관련 법령에서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기록관으로서 이관할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하는 것은 기록물 생산기관의 몫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생각도 변함 없으세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러면 범죄 현장에서 범죄 기록물을 수집할 때에도 범죄자가 골라 주는 기록물만 가져가야 되는 게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기록관에서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에 맞게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는지, 생산된 기록 목록은 존재하는지, 통상적으로 생산됐던 기록물 중에 누락은 없는지 이것 꼼꼼히 다 확인하고 계세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나름대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나름대로가 아니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누리집이지요. 누리집이 폐쇄됐는데도 ‘특이사항 없음’, 이 특이사항 없는 거 맞습니까?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그건 저희가 확인한 부분들인데요, 그건 서비스가 중단된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삭제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런 게 누락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관장님, 삭제돼서 확인 못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걸 누락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확인하셔야 되는 게 기록관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지금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기록관에게 있는데 정작 이관 실무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하고 있지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이관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모경종 위원** 이관 실무, 전반적으로 실무에 대해서……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생산기관에서 수합을 해서 대통령실 관할 기록관으로 보내면 그 이관된 부분 기록물들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관받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지적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가 점검 대상인 기관이 자기가 기록을 골라서 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없었다 하면, ‘원래 이거 없었어요’라고 하면 기록 자체가 애초에 없는 거네요? 그럼 기록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2월 3일 대통령기록관장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계엄 일어날 때 어디 계셨습니까?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

○**모경종 위원** 12월 3일 11시에 어디 계셨냐고요. 계엄 당시 어디 계셨냐 여쭤보고 있습니다.

맥에 계셨어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죄송합니다.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모경종 위원** 생각도 안 나지요? 저는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생생하게 생각나실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적어도 TV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라고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저처럼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처럼 국회로 달려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거 기억도 안 나십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합니까?

그런 순간으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기록이 제대로 있었는지, 누락되지 않고 있는지, 그 권력자가 맞든 권력자가 아니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고, 기록관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계시고 그런 커리어를 갖고 계신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고기동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모경종 위원** 이동혁 관장님의 후임 채용,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신임 관장 후보로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면접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언론에 났습니다. 제가 그걸 좀 확인, 말씀하기에는 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대답하기 어렵다라는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이후에 민감한 기록들이 있다, 그것을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것들이 대거 이관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 기록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정치적 이익을 떠나서 이 역사적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민주주의 국가, 세계적인 국가에서 이 부분이 기록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실,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이 있던 곳, 대통령실의 인사가 대통령기록물을 관장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차관님.

명심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여러 말씀들 숙고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대통령기록관장이 국민을 위협한 그런 정권의 수호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록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게 인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유의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혁 기록관장, 그 자리에 좀 일어나 보세요.

12월 3일 계엄 당시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그때 제가 약속이 있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약속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대통령기록관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국회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12·3 계엄 사태 당시 어디 있었냐 하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온당한 자세입니까? 그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관장의 정신 상태를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중에서 계엄 당시에 나는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문하고 확인하지 않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직무에 있는 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앉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한병도 위원입니다.

저도 목소리를 너무 높여서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픈 게 국가기관장의 인식 수준을 넘어서서 참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이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까 모경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가족 간의 이런 건 없지만 영화를 보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평생 이 유가족들은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하면서 그 영화를 보고 평평 울고 책을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 또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는 깊은 한이 맺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이렇게 공감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앞으로 다시는 국가기관의 장을 맡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의성 산불 관련해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너무 안타깝고 돌아가신 분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역시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재난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헌신을 해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들은 소리인데 소방청장님, 비상소화장치 압력이 약해서 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물이 5m도 나가지 않는다, 사용 교육을 받았음에도 정작 사용해 보니까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로 화마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비상소화장치가 전국에 충분히 설치는 돼 있나요?

○소방청장 허석곤 지금 현재 비상소화장치가 한 3년에 걸쳐서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강원도하고 경북을 중심으로 2807개소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것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소방차들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고 소화전에 있는 물을 뽑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소화장치로 가는 물의 압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런 것을 점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소방청장 허석곤 대응책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행안부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입니다.

○한병도 위원 이번 산불대응 합동훈련을 소방청은 상황조치훈련, 산림청은 합동 산불진화 도상훈련 또 국방부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그간 수백 번, 수천 번 훈련을 함께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재난이 닥쳤을 때 해당 훈련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대응하는 기관 간에도 원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즉 소방청과 산림청 간의 협업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꼭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이게 산림청이 주관해서 그렇다, 소방청이 주관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협업 체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이번 산불 관련해서 어쨌든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님, 요즘 고생 많으셨지요? 얼마 전에 제가 기자들한테 들었는데 언론을 상대로 부정선거 관련 모임 한번 진행을 하셨다면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시연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언론들 많이 참석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한 3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때 이쪽을 취재하는 기자들인데도 현장 와서 보고 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알았다고, 모르는 것들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기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이해가 됐다……

그리고 거기에 국힘 의원도 또 참석하신 분들도 있었다면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분들도 좀 어떤가요, 그것 죽 설명을 듣고는 좀 이해를 하시던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국회의원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고요. 같이 오신 분이 과거에 부정선거 대리인을 하신 분들이라 우리 선거 절차에 대해서 부정의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현장에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완적인 대체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설명은 드렸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병도 위원**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부정선거론 자체가 정치적 진영 간의 싸움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면서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이후에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아주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진실에 입각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 파악이 될 거라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충돌과 갈등이 완화가 되고 좀 더 합리적인 논의와 논쟁을 벌일 수 있는 때가 되면 저는 국민들이 반드시 사실에 입각한 내용들을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언론 브리핑 이런 것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심하는 세력, 믿는 세력, 다양하게 집단 구성해서 언론 브리핑처럼 노력을 해 주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들로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비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사회적갈등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끝나더라도 국회에서 선거 관련한 법을 보시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병도 위원**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오늘 논란이 많이 됐는데 기록물 관련해서 기록관장 임명하실 거예

요? 이제 3차인가 뭐 남았더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지요?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저희 인사처는…… 이게 해당 기관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공단이기 때문에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요청하면……

○**한병도 위원** 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윤석열 정부 출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관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이명박 정부에서 영포빌딩 문서 유출 또 박근혜정부 세월호 7시간 봉인 등 대통령기록물 은폐 논란 한복판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임명이 되면 되겠어요?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그래서 지금 절차는 역량평가를 마친 상태이고요.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야지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안녕하십니까?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지난 3월 경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동시다발 산불이 역대 최대의 피해를 남긴 재난이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급 재난, 대형 산불 진압의 주무는 물론 산림청이었지만 지역 소방의 역할도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산불 진압에 최선을 다해 주신 허석곤 청장님과 현장의 소방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이번 산불을 비롯한 그간 우리 소방의 대형 화재 진압 현장에 동원된 장비를 보니까 대부분 변함없이 분주히 날아다니는 헬기하고 그다음에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소방관들이 고무호스 들고 물 뿌리는 그 현장이 가장 눈에 많이 띄었는데……

이번에 산불 진압 등과 관련해 가지고 동원된 기존의 장비나 시스템 외에 첨단장비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물론 보니까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열선을 감지해 가지고 화재 진화 정도를 파악하고 하는 그런 것은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었는데 청장님, 동원된 최첨단 장비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주력으로 저희들이 많이 쓰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펌프차, 탱크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된 것이 산불전문진화차라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차량이 기동을 하면서 방수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성이 상당히 높은 장비가 있고요. 또 고성능 화학차라고 해 가지고 방수 거리가 한 100m 정도 나가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도로에서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히 유용한 좋은 장비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김종양 위원** 하여튼 그런 장비는 제가 봤을 때 뜻밖의 놀라운 어떤 첨단장비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제가 보니까 눈을 정말 번쩍 뜨게 하는 그런 최첨단 장

비가 지금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스라엘에서 개발되고 있는 파이어돔 들어 보셨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제가 세부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는데……

○김종양 위원 아직 물론 상용화는 되고 있지 않은데 이스라엘 스타트업으로 개발해 가지고 아마 곧 상용화할 거라고 그렇게 뉴스를 통해서 제가 접했었는데, 한번 보시지요. 정말 놀라운 최첨단 장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한번 올려 봐 주시지요, 영상을.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도 이런 첨단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나라지만 사실 IT나 보안·정보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도 앞선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런 장비를 갖다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개발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우리 소방 당국에서는 이런 최첨단 진압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저희들 소방에서는 평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기부나 관련 부처에서 R&D 예산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민간의 전문적인 장비를 우리가 실용화하는 이런 데 R&D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2025년도 기준 해서 한 3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AI와 관련된 그런 과제는 전혀 없더라고요. 사실 이런 최첨단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 등의 여건 마련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최근에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논란 등을 보면서 최첨단 산업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R&D 연구개발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매우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국회도 소방산업 선진화라든지 아니면 첨단 소방장비의 연구개발을 위해 가지고 법적 뒷받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방청장 허석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관련 부처와 협의를 더 강화하고 소방청에서도 더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하여튼 기존 우리 소방관들의 역량은 세계적인데 앞으로 이런 소방장비, 시스템도 경쟁력을 제대로 갖춰서 K-원전, K-방산, K-컬처에 이어 가지고 K-소방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청장님, 소방장비의 첨단화·선진화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특히 소방장비의 연구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용인갑 이상식 위원입니다.

오늘 박선영 위원장이 5·18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펌훼하는 발언을 해서 우리를 굉장히 분노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내란 정국에서 저를 또 가장 분노케 한 사람은 전광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김병찬 수사국장 나와 보세요.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요.

지금 전광훈에 대해서 전담수사반 편성했지요? 짧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안보수사국 특별수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중요한 진전이 있습니까? 없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됐습니다.

내란 선동이 전광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죄목인데 내란 선동이라는 죄목으로 재판이 있고 중요한 게 있었던 것은 이석기 전 의원 통합진보당 사건입니다. 수사국장 들어는 봤습니까, 이 사건?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들어 봤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석기 전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뭐가 내란 선동에 해당되느냐? 가장 센 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서 국가 기간시설 파괴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파괴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말로만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느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유죄를 선고하고 2014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당하고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이석기 전 의원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했다.

수사국장, 서부지법 폭동으로 몇 명 구속됐는지 압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95명 구속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95명 구속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만큼 정면으로 헌법기관을 침탈한 사태가 없었다. 이 과정이 순전히 우발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 우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배후에 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배후에 있을 수……

○이상식 위원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국민저항권 운운하면서 ‘윤 대통령 데리고 나온다’ 이런 말 안 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헌법기관을 침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요 단순히 발언으로 그친 게 아니고 실제 헌법기관 침탈하는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

○이상식 위원 아니, 말을 하세요, 예스, 노로.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인과관계 부분은 아직 확인이 덜 됐고요.

○이상식 위원 아니,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폭동은 분명히 일어났다 이 말이지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폭동은 일어났습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엔 전광훈의 죄는 내란 선동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소요교사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특별수사단에서 지금 나름대로 자료 분석과……

○이상식 위원 지금 자료 분석을 얼마 동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11건의 고발이 있었고 고발인 조사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전광훈에 대한 수사 계획 있습니까? 소환 계획 있습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특별수사단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려고……

○이상식 위원 그런 구체적 내용 좀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이 김건희 수사할 때도 소환 한 번 못 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김건희 겁나서 수사 못 하더니 전광훈도 겁납니까, 국장님?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없습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이상식 위원 전광훈 압수수색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뭐가 부적절합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저는 특별수사단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식 위원 지금 직무대행 아닙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제가 직무대행이라도 결과만 보고받도록 돼 있고 특별수사단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저는 결과만 보고받도록……

○이상식 위원 그러면 오늘 왜 특별수사단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권한대행이……

○이상식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지금 법카 유용 10만 4000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대충 몇 번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 130번 정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법카 10만 4000원……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이상식 위원 제 말 들어 보세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이상식 위원 법카 10만 4000원 유용하고 내란 선동 혐의하고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내란 선동 혐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위원장 신정훈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세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이상식 위원 그런데 압수수색 했다는 보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안 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했으면 저한테 했다고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십시오.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이상식 위원 이것은 아마 김병찬 국장 직속의 수사 사항이었을 텐데 촛불행동 관련해 가지고 이 후원에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이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몇 명에

했습니까, 몇 명에 대해서?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압수수색 그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횟수는 금융 영장을 네 번 하고요 사무실에 한 번, 다섯 번 신원을 조사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몇 명 했냐고 분명히 자료 요구를 하니까 못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너무 많아서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신문 보니까 한 은행에 대해서만 수천 명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탄핵 찬성 촛불집회를 하는 촛불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왜 내란을 선동하고 스스로 뒷돈을 맸다고 주장하는 전광훈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못 합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수사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뭘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조금 지나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확실합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

○이상식 위원 전광훈이라는 사람은 법치주의도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내란에 대해서 너무 쳐별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국민 통합과 그런 차원에서라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 종사자하고 전광훈 같은 이런 사람, 내란을 선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호영 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이상식 위원 대행이라고 해 가지고, 경찰청장이라고 해 가지고 국수본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내란 가담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일반적인 지침은 내릴 수가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일반적으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전광훈 관련해서도 인과관계를 충분히 여러 명을 다, 한 40명·50명의 관계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이호영 차장님, 구체적으로는 지시를 못 내리시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엄정한 수사 지시를 다시 한번 내리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런 범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중대하게 침탈한 전 광훈 같은 사람에 대한 단죄 없이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김병찬 국장입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수사국장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사국장이 왜 그렇게 티미해요? 위원님 말씀에…… 아무리 직접적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개입할 수는 없지만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국장이 왜 그렇게…… 제대로 답변하셔야지요.

지금 지적하는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나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형사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사 제대로 하고 있어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고요. 지금 특별수사단은 안보수사국장이 주관해서……

○위원장 신정훈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을 대행하고 있는 분 아니에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지요,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잘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리고 속도도 좀 내 주세요. 지금 그 문제를 뒤로 미룰 내용이 아니에요. 왜 다른 데는 전광석화같이 다 압수수색하면서 내란과 폭도에 관련돼 있는 그 당사자…… 텔레비전에서 공개적으로 공언하잖아요. 내란을 선동하고 있잖아요. 그 중범죄자를 왜 그렇게 쉬쉬해 가면서 수사합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수사팀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더 적극적으로 챙겨 주세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허석곤 소방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소방청장입니다.

○정춘생 위원 3월에 발생한 산불 피해가 굉장히 막대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일찍 그리고 제대로 진압을 했다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소방에서 소방청장으로 봤을 때는 그때 기상의 상황이 산불을 확대시키는 요인 중에 아주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온건조하고 바람이 초속 27m 이상 돌풍과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하면서 불티에 의한 비상과 더불어서 아마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복사열에 의한 불이 지나간 이런 흔적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빨랐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춘생 위원** 그런 자연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그래도 규모는 줄일 수 있지 않았었나,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피해를 더 키웠던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대응·지휘체계가 일원화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산불은 산림청이 그리고 산림 인접 화재는 소방청이 나눠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지금 현재 공중진화는 산림청이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가 보호라든지……

○**정춘생 위원** 예,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산불진화헬기의 공중작전도 각 기관에서 별도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의 구성이 무의미할 정도로 기관별로 대응해서 지휘체계가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같은 재난에 따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산불은 역대급 피해로 기록됐습니다.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없고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으니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청장님,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일단은 산불에 동원되는 각 기관들의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춘생 위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해 볼게요.

우선 산불 진화 시 공중에서 전체 작전을 총괄하는 지휘통제헬기가 가장 상공에 있으며 전체 헬기의 동선들을 통제해야 되는 게 맞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통상적으로 산림청에서……

○**정춘생 위원** 맞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5대 이상 뜰 때는……

○**정춘생 위원** 이번에 지휘통제헬기가 현장에 있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산림청에서 하는데 5대 이상이 한 장소에서 작전을 할 때는 지휘헬기가 뜨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했던 부분이라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춘생 위원**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이번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운영 방식입니다.

이번에 산불 진압 과정에서 강원 인제 그리고 대구 동구에서 임차 헬기가 산불 진압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종사 두 분이 헬기 추락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헬기 임차비 부담이 큰데도 산불 임차 헬기에 대한 국비 지원은 산림청만 담당하고 있고 정작 재난 컨트롤타워인 행안부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이번 사고 임차 헬기와 교신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어디도 없습니다. 소방청도 없었고 강원도 지자체도 없었고요. 산림청도 없었습니다. 어떤 교신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인 임차 헬기 조종사가 추락해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카톡 내용인데요. 유일한 대화 내용이 조종사가 뜨면서 인제군의 담당 공무원한테 ‘우리 뛴다’, ‘착륙한다’, ‘이륙한다’ 이것뿐입니다. 그 외의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현재 산불 대응체계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책임이 불분명합니다. 화재 진압 전문성을 고려해서 산불 대응은 소방청이 주관하고 산림청은 협력하는 체계가 맞지 않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이번 계기로 해서 범정부 TF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춘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소방청장 허석곤 예, 개선 방안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제가 OECD 국가를 조사해 봤는데요. OECD 국가 38개국 중 19개국은 소방청이 담당하고요. 8개국은 위기 재난 대응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을 하고 우리나라처럼 산림청, 산림기관에서 하는 게 6개에 불과합니다, 6개 나라. 그런데 화재 진압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화재 위치에 따라서 진압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파트에서 화재가 생기면 국토부가 진압하나요? 저는 이게 맞지 않는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화재 진압을 어디에서 발생하든 간에 소방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능과 권한, 책임을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일단은 국가에서 그것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그 결과에 소방청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방은 소방관이 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불을 잘 끌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었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산불 대응 권한의 소방청 이관은 물론이고요. 지자체의 헬기임차비 국비 지원 확대하는 부분, 운용체계의 정비도 행안부 그리고 관련 기관하고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정춘생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관련 예산인데요. 이번에 재난·재해 관련해서 소방청이 요구한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됐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정부안에 다 담기지는 못했습니다.

○정춘생 위원 어떤 부분이 빠져 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지금 현재……

○정춘생 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에서 산불 진화에 최적화된 진화차 확충 예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정춘생 위원 그런 부분하고 초대형 물탱크 구입 예산 그리고 소방헬기 보강 예산 등 요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행안위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충분히 증액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예결소위 심사할 때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김용빈 사무총장님,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대통령선거가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22일 한 3시간 정도 선관위에서 사이버 공격을 당했더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그 피해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대선에 관련된 이런 중요한 데이터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약 3시간 정도의 도스(DoS) 공격이 있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방어 체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특별한 피해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접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수사 의뢰를 했고요. 어떤 경위로 했는지 지금 수사가, 그러니까 접근자는 이미 확인이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배준영 위원 대선 치르는 데 문제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아예 접근 자체에서 저희가 완전 차단해 버렸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배준영 위원 경찰 수사 확실히 하고 계시고 문제없도록 노력하고 계신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경기남부청의 사이버수사대에 전담 팀 편성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지난번에 감사원 결과를 받아 보시고 감사원 결과는 앞으로 받지는 않겠지만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바꿔 나가겠다, 그래서 개선해 나가겠다, 조치해 나가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배준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를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준영 위원** 그런데 좀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국정감사 받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배준영 위원** 국정감사 받는데, 법원이나 경찰이나 조달청이라든지 국세청, 기타 등등 기관들은 지방청이나 광역단체 이런 단위로 다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안 받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시·도위원회 말씀이시지요?

○**배준영 위원** 그런데 시·도위원회에 우리가 직접 가서 국감 하지는 않잖아요, 위원들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배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고 또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봐서, 여야 합의 사항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시도선관위에 가서 국정감사를 해야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그런 결과라든지 채용 특혜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단은 지난 1년 동안의 감사 결과를 필요하신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감사제도가 지금 마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배준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가서 다른 경찰청, 법원 이런 데 하는 것과 동일하게 직접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 사무총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배준영 위원** 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런데 인원이, 저희 조직이 굉장히 슬림한 조직이라서 과연 그게 필요한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의견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배준영 위원** 매년 할 수도 있고 격년 할 수도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의견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법령 해석상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행안위의 소관 업무를 중앙선관위에서 시도선관위까지 구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지방에 가서 구체적으로 국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고기동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배준영 위원** 지난번에 화재 때문에 소방청장님도 대단히 고생하시고 고기동 차관님

을 비롯한 행안부에서도 다들 굉장히 고생들 하셨는데, 오늘 화재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화재뿐만 아니라 싱크홀도 사회적인 재난의 범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야 되겠고.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북한의 소음 공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재난 수준입니다. 70~80dB, 그러니까 헤어드라이어를 24시간 귀에 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회생활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난 수준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강화군에만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급한 일부 가구에 방음창 공사를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인천시와 강화군 예산 정도만 투입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소음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법도 개정하고 올 상반기 중 민방위기본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북한의 소음 공격에 대한 피해 지원 근거도 마련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행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위원님 노력하셔서 민방위기본법이 이번 6월 4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에 맞춰서 5월 중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말씀 주신 민방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사업 대책비를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소음 피해가 들어가게 됩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입니다.

○**위성곤 위원** 공직에 30년 이상 근무하셨지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예, 30년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내년 2월이면…… 퇴직이 언제지요, 퇴직 예정일이?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법적 퇴직일은 금년 12월 말입니다.

○**위성곤 위원** 12월 말까지가 공무원이고.

지난 2월에 퇴직준비교육 신청을 하셨다고……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은 1년 전에 가는데요. 저는 좀 늦은 편이어서 의사 표현하는 게 맞겠다 해서 2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동안 일곱 분의 대통령을 모셨지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예, 95년부터 했기 때문에요, 공무원 생활을.

○**위성곤 위원** 그래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로서?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뭐가 죄송해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일반적 공무원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위성곤 위원** 뭐라고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공무원이어서 정치적인 부분이라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무슨 정치적…… 아니, 그렇게 공직을 해 오셨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현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현재 결정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존중합니까?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예.

○**위성곤 위원** 왜 존중하지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헌법상 최고 결정기관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는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존중하고 있는데 계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겠다. 물론 현재에서 판단이 이미 내려진 거잖아요. 계엄은 위헌·위법했다,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현재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향후에 열람할 수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현행 제도상으로는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그 기록물에 대해서 국민이나 수사기관은 볼 수 있습니까?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위원님, 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로 구별이 돼야 되는데요. 일반기록물들은 일반 국민도 열람이 가능하고요.

○**위성곤 위원** 지정기록물은 볼 수가 없지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지정기록물은 일반 국민들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범죄자는 볼 수 있고 수사기관은 볼 수 없는 자료가 돼 버리는 거지요.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수사기관이 보려고 그러면 고등법원 영장을 받으면……

○**위성곤 위원** 볼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볼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되어서 내란과 관련된 기록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필

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위성곤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예.

○위성곤 위원 다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걸 먼저 하고 해야 되겠다.

이호영 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인데요.

며칠 전에 저희 선임보좌관에게 제주경찰청에서 경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 내용을 봤더니 지난 2024년 7월 3일부터 7월 26일까지 경찰청에서 병가 중 해외여행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목적으로 점검 지시 공문 사본과 지방청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원실의 선임보좌관을 수사를 해요? 제정신입니까? 청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의 특별점검 결과보고서가, 그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어서 그 담당 직원에 대해서 유출 경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의원실의 선임보좌관을 수사해요? 도대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게.....

○위성곤 위원 협박하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국회를 협박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게 아니기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어디서 나와 있는지 그 유출 경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관계이지, 그것이 고리가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이미 박정현 위원께서도 국감 때 질의를 하셨고 MBC에서 관련된 취재를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는데 문건 유출을 빌미로 제보자를 색출하는 그런 수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보복 수사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성곤 위원 그런 게 아니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공문서가 유출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파악해 봄야 되는 게 맞고요.

○위성곤 위원 직무대행님,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희 의원실까지 지금 뒤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내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지는 못했는데요.

○위성곤 위원 국정감사를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하여튼 제가 이것 한번 사실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정도면 관련 제보자 색출을 위해서, 제보자 색출이라는 빌미로…… 사실은 공익제보자지요.

관련된 MBC 결과를 보면 서부서에서 58일 병가를 내고 31일 동안 프랑스 여행을 했어요. 29일 병가를 내고 열흘 동안 스위스·프랑스·이탈리아를 다녀왔어요. 이런 사람,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정보가 공익기관이 아니고 제삼자나 언론에 자꾸 유출된 경로를 저희들이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사항에, 중간에 있는 분들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실질적으로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 공익기관에 하게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분상 불이익이, 드러날까 봐서 언론에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공익제보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래서 그것 신중하게 파악해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공익제보자 색출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시고요. 관련되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 경위를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수사 진행 중인 것을 바로 멈출 수는 없고요.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위성곤 위원 제보자를 색출해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청장님? 제보자 색출해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금 현재 보완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상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그 담당자 입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의원실의 선임보좌관에게 전화해서 수사 중이고, 수사 요청을 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마 그것은……

○위성곤 위원 이것은 의정활동에 명백한 방해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관련돼서 반드시 따지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알기에는……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경북·경남·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가장 피해가 많은 경북 부지사 출신으로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달려와 자원봉사해 주고 성금을 모아서 격려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달려오셔서 이재민들 손을 잡아 주시고 또 현안 파악에 앞장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행안부는 권한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께서 직접 현장에 큰 일주일 이상 머물면서 현황 파악하고 이재민들 지원하는 데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재민들의 쾌유와 조속한 일상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기동 대행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이달희 위원 저희 국민의힘에도 산불재난대응특위, 옆에 계신 이만희 위원님이 위원장이시고 민주당에서도 이번 산불 재난에 대해서 대응특위를 꾸려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달희 위원 저희들이 처음 지역에 가서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차관님께 몇 가지 긴급한 요청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그냥 맨몸으로 쫓아 나와서 집단 수용돼 있는 분들한테 긴급생계지원금을 한 300만 원씩 주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쳤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그때 굉장히 소중한 말씀 주셔 가지고, 제 기억에는 3월 29일 날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달희 위원 3월 29일이면 누구한테 주기로 했습니까, 대상자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피해자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이달희 위원 피해자는 어떻게, 범위를 좀……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최종 확정이 안 돼서……

○이달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이 반소나 전소되어서 못 돌아가는 분 그리고 사망자나 부상자의 경우 이렇게 한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결정됐으면 파악하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저도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지금하라고 계속……

○이달희 위원 기금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이것은 모금 기관 간에 합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기금은 이미 국민 성금에서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주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달희 위원 돈도 있고 또 받을 사람도 다 결정이 돼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것은, 한

달 가까이가 지났는데 아직 안 된 것은 너무…… 행정의 현장에 가셔서 직접 챙기고 이랬는데 체감이 있어야지요. 국민들께서 ‘야, 나라가 있어서 빈 몸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구나’, 이 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군을 체크해 보니까 일부 안 된 곳은 있지만 거의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빨리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 서둘러서 보완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것 빨리 좀 집행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입법권까지 부여돼서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요. 그 논의되기 전에 현행법에서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그때 이만희 위원장님 모시고 갔을 때 우리가 시군에 선지급을 하는 공문을 내려서, 시군에서 빨리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선지급 공문을 내려 달라 했는데 내리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그것도 조치가 됐습니다만……

○**이달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니까 그날 이튿날인가 바로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경상북도로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협조 요청이 들어갔고 경상북도에서도 그 공문을 받아서 바로 시군에 협조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 이후에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어떻게 잘 되어 가는지?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이 부분도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확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정치권에서 현장의 얘기를 듣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대행님께 이렇게 이렇게 긴급하게 이 두 가지를 하면 그래도 이재민들이 다시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빨리 힘을 얻겠다 싶어서 제안을 했는데 한 달 동안 그냥 문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돈이 있는데도 집행이 안 되고 대상자가 있는데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만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서 현장에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선지급……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보증해 주겠다. 우선 생활안정자금을 풀고 복구비를 써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갔는데도 시군에서 안 되는 원인은 뭡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피해자를 확정하는 데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받은 분, 안 받은 분 그런 고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달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앞으로 다른, 크게 재건이나 이런 문제는 특별법에 하겠지만 현행법에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 부담에 대한 그 항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에 맞춰서 선지급을 하면 되는데 행안부의 집행이나 실행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니었던지 질책 좀 하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저희가 더……

○**이달희 위원** 현장에 가서 고생하신 보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이 체감하고

이재민들이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재민한테 간 것은 한 개도 없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미흡한 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행안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채현일 위원** 아까 박선영 진화위원회장님의 5·18 왜곡하고 부인하는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개인적인 생각 말씀, 의견……

○**채현일 위원** 뭐 개인적인 생각도 좋고요. 지금 행안부차관이시니까 또 정부 입장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5·18 관련된 사실은, 그런 뉴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채현일 위원** 동의하지 않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채현일 위원** 진화위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진화위가 여기 행안부의 소관 부처지요, 대통령 직속이지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부처는 아니고 독립된 기관입니다.

○**채현일 위원** 인사와 예산, 조직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요.

설립 목적이 국가 폭력과 인권침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맞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데 5·18을 정면으로 부정을 하고 설립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진화위의 정체성이 문제고요. 무엇보다도 5·18 당시의 피해자,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5월 18일 행사잖아요.

지금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진화위 말씀이시지요?

○**채현일 위원** 예.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5·18.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민주화운동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민주화운동입니다.

○**채현일 위원** 그리고 여야가 지금 헌법 전문에 5·18 정신에 대해서 수록한다는 얘기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공감대가 있다는 것도?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채현일 위원** 국가 기념일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행정안전부 맞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관련 내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5·18민주화운동 주관 누가 하세요? 행안부에서 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행안부가 아니고 보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보훈부에서 하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채현일 위원**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광주 국립묘지 3년 동안 계속 갔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채현일 위원** 국립묘지를 찾아가 가지고 추모하고 대표해서 기념사도 낭독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정부 산하 공식적인 위원회의 수장이 부정한다, 폄훼한다?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아까 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가 박선영 위원장의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채현일 위원**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부 기관의 차관으로서 말씀하셔야지요, 당당하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어쨌든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또 그런 역사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안부 차원, 그러니까 우리 정부 기관들의 어떤 맡령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책무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저희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파면 결정 후에 조기 대선이라는 큰 숙제가 있는데, 가장 큰 숙제인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채현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얘기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지요? 선거를 치르는 심판이, 그것을 관리감독할 심판이 선수로 뛸겠다는 얘기가 많아요. 한덕수 대행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일단은……

○**채현일 위원** 아니, 뉴스를 보시면 다 나오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채현일 위원** 한덕수 대행이 지금 출마 예정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후보자가 되시는 것하고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게 좀 어폐가 있어서 제가 말씀……

○**채현일 위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선거관리는 하여튼 우리 선거위원회가……

○**채현일 위원**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지금 대선의 총괄, 어떤 행정의 책임자고 거기에 또 주무기관이 선관위원회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이게……

○**채현일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래서 노태액 선관위원장과 한덕수 대행이 최근에 전화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채현일 위원** 어떤 내용을 나눴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대선 결정일, 선거일 결정과 관련한 대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때 얘기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얘기를 했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채현일 위원** 그런데 참 이게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한덕수 대행이 사실상 대선후보자로서의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마 예정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되면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채현일 위원** 기부행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발언 제한이 있는데.

예전에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는 2017년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5일 만에 불출마 선언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채현일 위원** 그런데 지금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최근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출마하느냐?’, 질문하니까 ‘낫 옛(not yet)’, ‘노코멘트 하겠다’. 아직은 아니다, 답변하지 않겠다 하면서, 원래 부인을 해야 되고 이런 대선 관리의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 책임자로서 가야 되는데 그런 애매모호하면서…… 지금은 사실상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출마자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최근에 보니까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고 지방 일정 소화하고 지방의 어디 광주에 있는 식당에 가 가지고 사비로 식재료와 이런 데 쓰라고 돈을, 금품을 지급했어요. 알고 계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채현일 위원** 그것 선관위에서 어떻게 파악을, 해 봤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곳에 방문하셔 가지고 뭐 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채현일 위원** 이런 게 일반적인 행정 지원이나 업무 차원의 행위가 아니고 사실상 자영업자분들한테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라 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채현일 위원** 왜 생각을 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단 전제가 채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헌법

적 관점이 좀 다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선거의 기본적으로 주재자라고 생각하시는 관점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선거는 주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 이와 같은 임기 만료가 아닌 보궐선거의 경우에 선거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절차만 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채현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사실상 대선후보 출마 예정자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만약 대통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현일 위원** 지금 불출마 선언 안 하고 계속 이런 행위를, 그러면 선관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대통령이 만약 선거관리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래서……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그런 중립적인, 투명한 관리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저희들은……

○**채현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한다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하여튼 저희들은 선거관리는 저희가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아니면 최근에 사비로 기부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리고 행안부도 지원 부서라고 생각을 하지 절대 선거관리 권력을 행안부에 넘겨줄 생각이 없습니다.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대통령선거가 진행되게 되어서 역대 다른 대선보다도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사전투표소 그다음에 개표소뿐만 아니라 본투표……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국내에서의 선거관리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건데 해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권 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재외국민투표와 관련돼서 과거 선관위의 모습을 한번 진단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

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일단 PPT 첫 번째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작년이지요, 22대 국회의원선거 때 투표율을 보면 62.8% 그리고 2022년의 대선 때는 71.6%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은 전체 재외국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투표율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성권 위원 아까 말씀드린 투표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사람 대비 이렇게 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렇게 보면 여기 수치가 나옵니다. 투표가 가능한 공관 수가 178개고 전체 선거권자 수가,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이 197만 정도로 상정이 되는데요. 실제 신청하고 등록한 사람은 15만 정도이고 투표자 수는 9만 2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률이, 전체 투표 가능한 재외국민 중에서 등록률이 7.6%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이 이 정도밖에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7.6%의 등록률에 실제 투표한 비율을 다시 따져 보면 4.7%밖에 안 됩니다.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성권 위원 이게 지금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더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파견관 보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성권 위원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공관에 말하자면 외교관 신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외교관 신분으로, 몇 년 보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통상적으로는 1년 정도를 보내는데……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1년 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임기 만료 선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좀 달라집니다.

○이성권 위원 그렇지요. 1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고베 총영사를 했기 때문에 투표 관리하는 파견관을 봤습니다만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 수치가 나와 있어요. 파견 보낸 공관과 파견 보내지 않은 공관의 표를 한번 보십시오. 등록률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공관 보면 파견 보낸 공관은 전 세계 22개, 안 보낸 데가 156개인데 파견 보낸 데가 등록률이 더 높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선관위 직원이 가 있으니까,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거점 공관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성권 위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모든 공관에 못 보내니까 어떤 특정

국가라고 했을 때 거점을 몇 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성권 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표의 등록률을 보면 과연 보낸 공관은 6.4%밖에 안 됩니다. 과연 보내지 않는 곳이 오히려 10.4%예요. 그러면 그 많은 비용과 인력을 보낸 결과물이 역으로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급박스럽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저희 선거인력, 내부 국내 선거인력도 부족해서 사실은 안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재외동포청이나 외무부에서 이와 같은 선거관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전문 선거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와서 그 인원을 산출해서 보내는 데도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성권 위원** 재외선거 관리를 위한 과연관을 보내지 말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추정 선거권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선거관리에 저희 문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재외동포청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해외의 재외국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또 참조가 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달리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권 위원** 그건 환경적 요인에 대한 나름대로 그냥 변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써 우리 재외국민들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선관위의 근본적인 취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과거에 제가 공관에 근무할 때 와 보면 제가 느낀 건데 1년간 과연 와 있는 분들이 평상시에 뭘 하는지 모릅니다. 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하여튼 잘 보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 지금은 대통령선거가 이번에 있고 다음 국회의원선거도 해당이 될 건데 그런 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대로 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리고 다음은 경찰청 차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이성권 위원** 지금 이 표 바로 보면요. 중국인들이 최근에, 특히 국내적 혼란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와서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촬영 빈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공수사 협의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 권한이 올해부터 경찰청으로 100% 이관이 다 됐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수사권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데 지금 수사하는 내용들을 제가 따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때그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상당히 부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4월 23일입니다. 중국인 2명이 오산 공군기지를, 전투기를 무단 촬영했어요. 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이전에 21일 날 촬영이 있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있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리고 풀어 줬지요, 무혐의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성권 위원 그런데 23일 날 다시 잡힌 이유는 미군이 그걸 발견을 해서 신고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미군 관련해서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이성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단 그 당시에 같은 중국인들이 23일하고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군용기 촬영한 건 맞습니다.

○이성권 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성권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경찰청이 대공수사와 관련된 혹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우리 군사기밀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초기 수사 능력이 있었으면 동일한 사태, 풀어 주고 다시…… 얼마나 간이 크면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나 있으면 다시 똑같은 데 가서 촬영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이 대공 용의점을 파악할 때는 여러 유관기관이 합동 감식을 합니다.

○이성권 위원 예, 합동 감식을 하는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당시에 현장 확인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권 위원 그걸 주관하고 있는 게, 전체를 지휘하는 게 경찰청으로 넘어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래도 합동 감식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이성권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추가로 이어서 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보충질의를 통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평소와는 달리 3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추가 질문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추가 질문하기 전에요, 저도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추가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현재로부터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상황이, 내란 문제는 현재의 판결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형사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의지 또 경찰의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대체로 경찰의 수사는 좀 소극적이고 검찰의 공소 유지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수사 진행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차장입니다.

저희들이 수사 의지가 없다면 수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고요. 또한 내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수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처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제출 대상 방식 이것에 대해서 경호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우선 경찰이 답변석에서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지금 국수본부장 퇴임 이후에 굉장히 소강 상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신정훈 우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나름대로 특수본부에서……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일단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그리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89건 정도 되는데요, 표에 보면. 이 중에서 영장이 기각된, 검찰에 의해서 기각된 사례가 21건이나 돼요. 이 정도면 검찰이 경찰 수사를 거의 방해하고 있다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찰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악전고투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압수수색영장만큼은 좀 많이……

○위원장 신정훈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이렇게 검찰에 의해서 불청구되는 그러니까 기각되는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습니다. 다만 여러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라도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검찰이 영장을 가지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 신청일 겁니다. 세 번이나 기각됐어요. 법원의 판단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검찰 수준에서 세 번이나 영장을 불청구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권해석, 그런 판결을, 결론을 내렸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는 검찰이 출석조차 안 했어요. 이런 검찰의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경찰,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검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조치할 그런 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직 고발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영장이 발부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아쉽기도 하고요. 앞으로 더욱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검찰도 문제지만 경찰이 지금…… 최근에 경찰의 수사 속도, 의지,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오전의 답변 과정에서 16일 날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10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그냥 임의제출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임의제출하고 압수수색하고 똑같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물론 다를……

○위원장 신정훈 전혀 다르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대통령이 과연된 상태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란 범죄가 거의 현재에서 판단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 하나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대통령실 및 경호처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계속 압수수색을 불승인하니까……

○위원장 신정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내란 범죄를 규명하는 수사보다 더 중대한 이익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내란죄 규명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판단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라서 저희들도 좀……

○위원장 신정훈 그 판단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보고받기에는 대통령실하고 경호처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위원장 신정훈 아니, 경호처가 사람입니까? 누구냐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무슨…… 그러니까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경찰의 수장이, 이런 중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소위 말해 거부했는데 누가 했는지 왜 말 못 합니까? 경호처가 사람이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누구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압수수색이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그것

을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얼버무리세요? 정진석 실장 아닙니까? 이야기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사국장 나와 보세요.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 누가 냈습니까?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저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수사단에서.....

○위원장 신정훈 아니, 누가 이 불승낙,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절했냐고요? 그건 법적인 절차고 구체적인 서면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서면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경찰청수사국장 김병찬 그 부분은 특별수사단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결과를 개별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니까 견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에 내란범죄를 수사하면서, 내란범죄는 통치권자라도 형사소추를 면할 수 없는 범죄예요. 그런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이 압수수색영장이 누가 거절했냐고 묻는데도 대답도 못 하는 경찰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 이게 수사의 구체적인 비밀사항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공개된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차장, 직무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압수수색영장이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유가 분명해야 되고 그 기관의 책임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닌데 그 기관의 책임자도 특정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의 수장이 무슨..... 지금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까 금방 말씀을, 수사 사항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파악을 제가 또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참.....

110조, 111조 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정도는 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의미는 읽어 보면 모릅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이나, 소위 말해서 경호처장에 대한, 경호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도 못 하고 말이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압수수색이 꼭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집행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방향, 임의제출로 협의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대통령이 풀려났어요. 내란범죄자가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법 집행은 엄정해요. 그러면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엄정하게 해야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하여튼 특별수사단에 철저히 하도록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철저히 해 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리고 거절한 사람의, 소위 말해서 대통령비서실장인지 경호처 차장인지 분명히 특정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제가 직권남용 행위로 고발하려고 그래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 마치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이만희 위원 저도 위원장님 의견 존중하고 여러 가지 의사진행에 대해서 협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스스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금 발언 시간이 7분 주어지면 그 7분 가지고 축약해서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 회의 운영을 하시면서 발언한, 그냥 단순한 회의 진행 말고 관련 부서에 대해서 과도한 질책, 나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티미하다는 표현을 쓰신다든지 그러니까 견찰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발언 같은 것들은 정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시간 오늘 활용하는 데서 다 카운팅을 해 보시면 일상적인 회의 진행과는 다르게 위원장님의 발언, 질책, 내지는 그 의견을 표명하는 데 들어가는 의견들이 저는 최소한 20분 이상은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공평하게 위원들한테 발언 기회 주시고 회의 진행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떤 전체적인 하나의 높은 위치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위원장 신정훈 됐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정말 심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저는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 대개, 뭐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막지 않고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회의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 발언에 대해서도 최대한 압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과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제가 회의 진행에 대해서 더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의 의사진행 내지는 질의 과정에 충분히 존중하고 시간을 충분히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 또한 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발언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제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고기동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모경종 위원** 새롭게 구성될 정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모경종 위원** 이렇게 중앙정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처럼 준비를 행안부에서 특히 기울여 줘야 될 것이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일 겁니다. 사실상 내년의 선거를 통해서 신설되는 자치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너무나도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검단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여기는 올해 예산만, 분구에 필요한 예산, 새로 구가 설치된 예산이 487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세워놓은 예산을 보니까 158억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329억가량을 서구, 그러니까 자치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서구라는 곳은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 분구 예산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원래는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있는데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알고 계신 사항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모경종 위원** 이 지점에 대해서 작년 국감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계실 때 행안부장관에게 질의를 했더니 ‘입법적인 조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지난 2월 회의 때 제가 차관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인천시의 상황들을 보면 전혀 개선 사항이 없고 행안부에서도 역시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법안1소위를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소위에서도 상당히 행정안전부에서 소극적인 대안을 내고 자꾸만 다른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군요. 도대체 다른 방안이 뭡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일단 인천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일단 저희의 고민은 그 법안이 오히려 인천이나 검단구 쪽에 재정적으로 불이익한 또 마이너스가 발생할 것 같아서 다른 방안을 조금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경종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천시가 이 분구에 필요한 예산에서 정말 이만큼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에 그 나머지 예산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됩니다. 정부 입법으로 해서 만드는 자치구입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입장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원실과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방의회가 새로 생길 겁니다. 신설되는 자치구니까요. 그런데 이 신설되

는 지방의회 첫 임시회 소집권자가 불분명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선거 관련된 조항이 지금 정비돼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 지점이 아니라 최초 임시회 소집권자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은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의회 의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임명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 보니 소집권자도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이런 입법적인 불비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법안 발의를 할 텐데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입법의 불비를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말씀처럼 법안이 보완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단순히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체계가 개편되면서 지방자치구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부족한 면을 채우자는 겁니다. 단순히 한 지역에 해당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안부에서 입장문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식입니다.

이호영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상식 위원** 경찰은 내란에 가담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내란 진압 과정에서는, 특히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중요한데요, 마무리가 중요한데 신정훈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주춤하고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에 방해를 하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하는 것은 수사상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의 위상이나 자부심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상식 위원** 차장님, 경찰이 지금 힘이 세졌거든요. 힘보다도 권한이 세졌는데 경찰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힘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번씩 있습니다.

차장님, 경호처 두렵습니까? 경호처 이거요 저는 차기 정부가 되면 편제가 바뀌어 가지고 경찰청으로 편입될지도 모르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세계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검찰은 12월 4일 안가 회동 4인, 이상민·박성재·이완규·김주현, 이 4명이 회동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가의 CCTV를 경찰이 신청하니까 불청구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 네 분이 다 법조인이에요, 법조인. 거기다가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민정수석, 3명이 다 검찰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의 카르텔,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직 이기주의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장 불청구 사유 제가 받아 보니까 러프하게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검찰이 자기들이 조작용 헌 칼 쓰듯이 압수수색 남발하고 구속 남발할 때 언제 소명을 하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다시 영장 청구할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 수사 파트에서 검토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저희들이 발부받는 게 당연한데 법적으로 우리가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것은 나중에 개헌이 있을 때 그런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도 저는 반드시 다시 재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것은 단순한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가 아니고 제가 말했다시피 조직의 자존심과 위상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이번에 내란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거열할, 나열할 시간이 없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내란 수사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즉시항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석방에 대한 즉시항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번에 확실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수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내란죄를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김성훈에 대해서…… 제가 또 전광훈과 더불어 가장 분노하는 사람이 김성훈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권력의 사병으로 전락해 가지고 법관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두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차제에 누가, 경찰이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최대의 수사기관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면 끝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엄정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오늘로 20일이 됩니다. 그런데 내란 세력들이 지금 여기 저기서 버티고 있어서 내란 수사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호영 직무대행, 수사에 성역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없는데 왜 경찰은 대통령실 관저에만 가면 작아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까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상 그거 때문에 그런데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아까 누구인지 말씀 못 하던데 제가 얘기할게요. 정진석 비서실장 아닙니까, 책임자가? 그런데 여기 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요, 형사소송법상?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내란행위만큼 중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란행위를 수사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강하게 못 하시지요?

지난번 4월 16일 날 경찰 특수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하러 가서 경호처랑 10시간 정도 대치하다가 그냥 돌아왔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빈손 회군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호처에서는 4회, 대통령실 3회, 7회 정도 됩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이 정도 되면 지금 140만 경찰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수본에서……

○박정현 위원 그날 회군하면서 대통령실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기로 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출받았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직 임의제출 대상하고 방식, 자료 범위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시간을 자꾸 끄시면 이분들이 왜 압수수색을 막겠어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내란 관련된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수사하시겠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 전하고 다르게 경호처에서도 전향적으로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박정현 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안 주는데 무슨 전향적으로 지금 경호처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호처가 그렇게 녹록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김성훈이 버티고 있고 그런데……

저는 경찰의 수사 의지가 과연 있는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는 경찰 출신이라서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시던데 일반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저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지금 약간 소극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박정현 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경찰의 최고 수장이었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다 내란 주요 종사자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경찰은 굉장히 큰 불명예를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박현수 서울청장, 내란 관련 피의자로 입건 조사받고 있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직 참고인 조사만 받은 상태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내부의 정화도 안 되고 내란 수사도 제대로 안 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시거든요.

140만 경찰의 명예, 현장에서 정말 죽으라고 일하는 일선 경찰들의 명예를 이렇게 계속 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압수수색 방해자인 정진석 비서실장, 김성훈 경호차장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이분들 다 지금 내란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적극적으로 지금 방해하겠어요, 압수수색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 이 사람들을 반드시 수사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거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의 경찰로 돌아오겠다는 앞서 이호영 권한대행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대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말로 하지 않고 행동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찰은 국민의 경찰로 영영 못 돌아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특수단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왜 국민의힘과 박선영 진화위원장이 12월 3일 이후에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는지, 그것이 정치적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진실인지 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오늘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대법원에 의해서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군부독재의 학살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내란도 옹호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45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전두환의 군부독재 그리고 5·18 광주에서 벌어졌던 학살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독재 잔당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버젓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쿠데타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국민의힘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용혜인 위원** 그리고 오늘 박선영 위원장의 이 망언에 ‘문제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국민의힘 위원들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이달희 위원** 절차에 대해서 항의한 겁니다.

○**용혜인 위원**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위원들 아니면 정부 인사들이 이 자리에 아직도 있다면 박선영 위원장처럼 이 자리에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퇴장 명령시키시지요.

○**이만희 위원** 정말 진짜…… 말조심하십시오!

○**용혜인 위원** 2기 진화위는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지만……

○**이달희 위원** 말조심하세요! 우리가 절차를 문제 삼았지 언제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까?

○**용혜인 위원** 극우 김광동, 박선영 체제를 거치면서 존재 의미를 잊었습니다. 문 닫아야 하고요. 동시에 중단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3기 진화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달희 위원**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니!

○**조승환 위원**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 신정훈** 자, 자……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장내 소란)

○**김종양 위원** 발언 제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달희 위원** 아니, 타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용혜인 위원** 정확하게 박선영 위원장의 망언에 대해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 드릴 테니까 그때 이야기하세요.

○**이만희 위원** 아니, 저런 내용들 어떻게 듣고만 있습니까?

○**용혜인 위원**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이어졌던 역사 쿠데타의 끝이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이달희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김종양 위원** 퇴장시키세요, 퇴장.

○**위원장 신정훈** 듣고 이야기합시다, 듣고.

○**용혜인 위원** 2년 동안 역사 쿠데타를 대대적으로 벌였던 이유, 자기가 이렇게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질서 유지 안 하십니까?

○**이달희 위원** 질서 유지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박선영 체제 끝내고 역사 쿠데타까지 멈춰 세워야 내란 종식의 온전한 완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시다면 국회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진행하느라 선관위 비롯한 공무원들이 참 노고가 많았습니

다. 그런데 또 조기 대선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선관위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주시에서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남원시에서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용혜인 위원** 두 사례 모두 순직으로 인정되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순직하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함께 잘 협의해서 조기 대선을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용혜인 위원** 그리고 행안부차관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거관리에서의 행안부의 역할이 선관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선거 기간, 선거사무 기간 중의 과로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선거사무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에 투입되는 투개표 사무원에 대한 예산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나야 지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공무상 재해들이 미연에 좀 방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무부처인 선관위와 또 투개표 사무원의 예산 담당 부처인 행안부가 잘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이제 그냥 하십시오.

○**이만희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저 말씀 중에서 과도한 부분들은 저희 다뤄야 됩니다.

○**위원장 신정훈** 아니, 충분히 하실 말씀 하셨어요.

○**용혜인 위원** 질의 시간에 하세요, 그러면. 저는 제 질의 시간에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어요.

○**배준영 위원** 거론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거론했습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용혜인 위원** 저는 제 질의 시간에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 하세요.

○**이달희 위원** 국민의힘 거론 안 했으면 제가 말……

○**위원장 신정훈** 국민의힘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배준영 위원** 거론했어요.

○**이달희 위원** 속기록에 있으면…… 발언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않았어요.

○**이달희 위원** 속기록에 있는지 봐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속기록 보세요.

○**위원장 신정훈** 예.

○**이달희 위원**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용혜인 위원** 질의 시간에 하시라고요.

○**조승환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결정할 사항이지요.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5·18을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기관장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정도는 중요하지 않고 사회자가 하는 이야기에, 티미하다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 있는 발언으로 느껴집니까?

○**김종양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면 주면 되지 그걸 갖다가 또 어떻게 편향되게 그렇게 이쪽저쪽 이야기를 갖다가……

○**위원장 신정훈** 동료 위원님이 국민의힘 거론하지 않으셨어요.

○**이달희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준영 위원** 의사록 보세요.

○**이달희 위원** 의사기록 볼시다.

○**용혜인 위원** 질의 시간에 하세요. 다른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 이야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 여기의 룰 아닙니까?

○**위원장 신정훈** 자, 질의하세요.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질의 시간 있으시니까 질의 시간에 하세요. 그거 가지고 그만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망언 중의 망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국가 기관장의 그 발언이야말로 천인공노할 망언입니다.

○**배준영 위원** 진짜 너무합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저희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아니, 그게 너무하다고 생각되세요? 그 발언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만희 위원** 잠시라도 의사진행발언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용혜인 위원** 아니, 동료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의사진행발언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이달희 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용혜인 위원** 질의 시간에 하세요, 질의 시간에!

○**위원장 신정훈** 그런 문제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들이!

○**조승환 위원** 신상발언해야 돼, 신상발언!

○**이달희 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모르시잖아요.

○위원장 신정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동료 위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달희 위원 주세요. 우리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뭐 퇴장시키시든지요.

○용혜인 위원 뭐 말씀해 보세요. 북한군 개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종양 위원 너무 자의적이다. 너무 마음대로 하신다.

○이달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퇴장시키세요, 그러면.

○이달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희가 무슨 말을 할지……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내용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아니, 충분히……

○이달희 위원 내용에 공감하는데 왜 발언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신정훈 충분히 의사진행발언 드렸어요.

○이만희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질의 시간에 하시라고요!

○조승환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신정훈 충분히 의사진행발언 드렸어요.

○이달희 위원 발언권을 줘야 국민들한테 저희도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만희 위원 아니, 이 내용 자체가 국회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충분히 의사진행발언 드렸어요.

○이달희 위원 마이크를 줘야 국민들한테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만희 위원 국민들한테 그런 내용이 아니란 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이달희 위원 마이크를 줘야 우리가 광주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조승환 위원 국민의힘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 많이 드렸어요.

○용혜인 위원 질의 시간에 하시라고요.

○이달희 위원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박선영 위원장의 천인공노할 망언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이만희 위원 국회방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중계방송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발언하겠다는데 왜 그걸 막으세요?

○이달희 위원 아니, 국회방송을 통해서 우리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용혜인 위원 질의 시간에 하시라고요!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질의하시라고요.

○이달희 위원 주십시오, 위원장님.

○배준영 위원 아니,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달희 위원 주십시오.

- 용혜인 위원** 다른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지 않는 게 위원회 진행 아닙니까?
- 위원장 신정훈** 충분히 동료 위원님 의사진행…… 아니, 본질문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통해서 하세요.
- 배준영 위원** 너무 편파적으로 하세요.
-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또 의사진행발언 서로 계속 주고받을까요?
- 이달희 위원** 아니, 국민들께 정확하게 들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
- 위원장 신정훈**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 용혜인 위원** 질의 시간에 하시라고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잖아요.
- 이달희 위원**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배준영 위원**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말이야.
- 이달희 위원** 아니, 우리도 얘기해야지요.
- 위원장 신정훈** 무서워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 용혜인 위원**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의사진행발언을 꼭 하셔야 됩니까?
- 위원장 신정훈** 당연히 할 만한 이야기하신 거예요.
- 이만희 위원** 아니, 이게 국회방송을 통해서 다 국민들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 이달희 위원** 국회방송을 통해서 우리도 국민들께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신정훈** 자, 그 이야기가 그렇게 원통하면 그 발언에 대해서 지적하세요.
- 이만희 위원** 그러면 국민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할 기회도 주셔야지요!
- 용혜인 위원** 질의 시간에 하시라고요.
- 이달희 위원** 아니, 내용에 대해서 들어 보지도 않고, 내용은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신정훈**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가치판단도 못하면서 자기주장을 하려고 하면 저는……
- 이달희 위원** 자기주장 하는지 안 하는지 위원장이 내 마음을……
- 이만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의 모든 걸 다 재단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내용에 대해서……
- 용혜인 위원** 그만하세요.
- 이달희 위원** 내용을 안 보셨잖아요.
- 위원장 신정훈** 저는 용혜인 위원님이 본인의 의사진행발언, 본인의 질문 시간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 이달희 위원** 시간이 지나가면 해답이 안 되잖아요. 제가……
- 위원장 신정훈** 질문 시간 있으니까 하시라니까요.
- 배준영 위원** 아니,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난을 했으니까……
- 용혜인 위원** 질의 시간에 하세요. 조은희 간사님 질의 시간이잖아요, 지금.
- 이달희 위원** 용혜인 위원이 위원장입니까?
- 위원장 신정훈** 용혜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 이달희 위원** 시간 주십시오.
- 위원장 신정훈** 용혜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인의 질문 시간을 통해서 본인의 의지를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세요. 이야기

하시되……

○이달희 위원 우리 당 얘기를 하니까……

○이만희 위원 아니, 질문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조승환 위원 이거는 신상발언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이달희 위원 신상발언이니까 우리도 해명할……

○위원장 신정훈 무슨 신상발언이에요? 왜 신상발언을 드려야 됩니까?

○용혜인 위원 제가 무슨 신상발언했어요?

○이달희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왜 그런 신상발언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만희 위원 왜 입을 막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국민을 대신해서 용혜인 위원님 하실 말씀 하셨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만희 위원 아니, 무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우리도 할 말 있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용혜인 위원 아니, 질의 시간에 하시라고요.

○위원장 신정훈 질문 시간 있으시니까 하시라고.

○이달희 위원 할 말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용혜인 위원 아까는 국민의힘만 의사진행발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용혜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본질문, 본인의 의사진행 시간을 이용하세요.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내용에 동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용에 동의한다는데 왜 마이크를 안 주시는 거예요!

○용혜인 위원 형식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만희 위원 주세요, 그냥!

○위원장 신정훈 의사진행발언 말고 본질문 시간을 통해서 하세요.

○이달희 위원 나중에 돌아가면…… 위원장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혜인 위원 아니 이달희 위원님,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지 않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달희 위원 아니, 신상발언입니다.

○용혜인 위원 그게 국민의힘이 매번 주장하시던 거 아닙니까?

○조승환 위원 아니, 신상발언의 문제잖아요!

○이달희 위원 우리 당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용혜인 위원 이게 뭐가 신상발언의 문제예요?

○조승환 위원 국민의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국민의힘 위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에 있으면 주겠다고.

○용혜인 위원 질의 시간에 하시라고요!

- 조승환 위원** 아니, 나는 질의 시간 양보까지 했어요!
- 이달희 위원** 국민의힘 얘기했잖아요!
- 용혜인 위원** 질의 시간에 하세요! 조은희 간사님 순서 아닙니까, 지금?
- 위원장 신정훈** 충분히 의사진행발언 제가 많이 드렸어요. 이제는……
- 이달희 위원** 아니, 국민의힘이라고 안 했다 했는데 속기록에 보십시오. 있으면 저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 조은희 위원** 속기록에 있습니다.
-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훈** 본인의 질의 시간을 통해서 하세요.
- 이달희 위원** 신상발언 주십시오.
-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 얘기 질의하셨으니까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야지요.
- 배준영 위원** 속기록에 있어요.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도 신상발언 하자고 그럴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상식 같은 얘기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질문하세요.
-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에 있으면 준다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신정훈** 저는 용혜인 위원님이 충분히 하실 말씀 하셨다고 생각해요.
- 이달희 위원** 속기록에 있으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속기록 확인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정훈** 속기록 확인해 주세요.
- 이달희 위원** 신상발언입니다, 이건. 속기록 확인해 주시라니까요.
- 조은희 위원** 자, 제가 하겠습니다.
- 이달희 위원** 속기록 확인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 조은희 위원** 속기록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위원들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용혜인 위원께서 동료 위원의 인격을 모독한 겁니다.
- 이달희 위원** 우리가 박선영한테 언제 동의한다고 했습니까?
- 용혜인 위원** 제가 언제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도 안 하신다 그랬지요.
- 조은희 위원** 잠깐만요.
- 이만희 위원** 동료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용혜인 위원** 뭐가 아니에요!
- 이달희 위원** 뭐가 아니야. 5·18에 언제 우리가 내용에는 동의한다……
- 이만희 위원** 어떻게 동료 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 용혜인 위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안 하셔 놓고 뭘 잘했다고 큰소리세요?
- 이만희 위원** 뭐 큰소리라니. 뭐가 큰소리예요!
- 이달희 위원** 아니, 누가 언제 뭘 얘기했어요!
- 용혜인 위원** 뭘 잘했다고 큰소리세요!
- 이만희 위원** 어떻게 동료 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은 데서 회의하자고 얘기를 해요! 기회를 주면 되잖아요!
- 용혜인 위원** 아까 위원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 이만희 위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한테도?
- 용혜인 위원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 이만희 위원 말을 안 하면 다 동의하는 겁니까?
- 이달희 위원 무슨 소리야.
- 용혜인 위원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 이달희 위원 어디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 용혜인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 이만희 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 이달희 위원 우리는 우리도 5·18에 대해서……
- 용혜인 위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냐, 국민의힘 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 이달희 위원 뭐 하는 거예요!
- 이만희 위원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남, 그 의원들 촬영이나 하고 다니면서 말이야.
- 용혜인 위원 내란도 옹호하고.
- 위원장 신정훈 자,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속기록 확인해서 의사진행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의 편파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위원장님이 거의 10분, 20분 계속 건건마다 말씀하시면서 위원장도 할 말은 하고 동료 위원들의 발언도 충분히 기회를 준다고 그러셨는데 바로 몇 분 후에 뒤집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인격 모독을 당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5·18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지금 하셨고 위원장님은 국민의힘 위원 얘기한 적 없다, 속기록에 없다, 있으면 발언 기회를 주겠다 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시고 왜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요즘 위원장님의 의사진행, 위원회 진행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좀 정신줄을 놓으셨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것도 과한 이야기예요.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조은희 위원 저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정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조은희 위원 과한 얘기를 해도 본인의 발언 시간에 하면 된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하는 겁니다.

○용혜인 위원 제가 정신줄 놨다고 했습니까?

○조은희 위원 용혜인 위원의 망상증은 심각합니다. 제발 망상증 버리고 정확한 눈으로 좀 보십시오. 저희들은 어떻게 기관증인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가서 정회시켜 달라고 했는데……

○용혜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가시라고 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은희 위원 경위권을 발동해서 기관증인을 끌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장한 겁니다. 나중에는 뭡니까? 오셔 가지고 퇴장하라는 말도 못 하시고…… 잘못했거든요. 제가 중간에 제안을 한 것도 뒤집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재명 대표가 좋아합니까? 내년에 출마하시려고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용혜인 위원은 비례대표 두 번 받고 좋아서 충성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 발언 시간에는 무슨 말을 해도 된다고 얘기 하시니까 제가 평소에는 안 할 말을 내가 합니다. 저는 이런 위원회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장 신정훈 저를 아무리 모독해도 광주 시민은 모독하지 마세요.

○배준영 위원 발언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조은희 위원 중간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예, 충분히 말씀하세요.

○조은희 위원 저는 이런 위원회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앞으로 깊이, 넓게 반성하십시오.

정청래 위원장보다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저를 백번이라도 모욕해도 좋습니다마는……

○조은희 위원 혼자 잘하십시오. 내년에 뭐가 되는지 보십시오.

○배준영 위원 혼자 잘하세요. 혼자 잘해 보세요.

○위원장 신정훈 예. 저를 백번이라도 모독해도 되지만 광주 시민들을 모독하지 마세요. 광주 시민들을 모독하지 마세요!

(장내 소란)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런 식으로 회의 진행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한마디도 못 하는 당신들, 한마디도 못 하는 당신들……

○조승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왜 한마리를 못 했어요? 말했지요.

○위원장 신정훈 저 망언에 대해서, 저 망언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했잖아요! 한마디도 못 했잖아요. 했어? 했어?

○조승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왜 말을 못 했습니까.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 신정훈 했어?

○조승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지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반말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했어라니!

○위원장 신정훈 했어?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저도 참아 냈어요. 그러지 마요.

○위원장 신정훈 저런 망언, 한말씀도 못 하신 양반이야.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회의하시고……

○위원장 신정훈 저를 얼마든지 모독하세요.

○조승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 너무하신……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위원장 신정훈 광주 시민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마시라고.

○조승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광주 시민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신정훈 저런 기관장에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누가 광주 시민을 모독해요?

○위원장 신정훈 그런 모독하는 발언을 한마디도 지적 안 하셨잖아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조승환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광주 시민은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혼자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혼자서 하세요. 누가 광주 시민을 모독해요? 덮어씌우지 마세요!

○위원장 신정훈 모독하는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했잖아요!

(일부 위원 퇴장)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기회 주세요. 속기록에 국민의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발언하세요.

○이달희 위원 국민의힘의 이달희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당의 이름은 국민의미래였습니다. 저희 국민의미래 후보 공천을 하고 첫 번째 저희들 모두 모여서 망월동 국립묘지에 갔습니다. 광주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광주 시민들의 아픔 가슴에 안고 그 광주 시민들이 일구어 놓으신 민주주의를 우리 이 땅에 계속 이어 나가자고 첫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비가 왔습니다. 우리 최보윤 의원은 휠체어를 타고 그 비 맞으면서—비례대표 1번입니다—하나하나, 망월동 묘지에 가서 우리가 광주정신 기리면서 시작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동료 위원이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을 전체를 모독하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박선영 위원장의 그런 동료 위원들과의 관계에서 위원장님의 그 질의에서 부적절한 대답이라고 정회 시간에 우리 다 같

이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절차 아닙니까? 절차에 보면, 우리도 법 검토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정회를 하고……

그때 우리가 항의했던 것은 박선영 위원장의 그 발언을 옹호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만희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그대로 속개를 하셔서 그 절차에 대해서 항의하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왜 저희들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 주시고……

광주 시민을 우리가 누가 모독했습니까? 존중하고, 첫 번째 행사가 저희들 비 오는데 망월동에 가서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약속했던겁니다. 이렇게 몰매를 맞고 광주 시민들이 우리를 이상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본심을 얘기하고 싶은데 왜 입을 막으십니까?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십니까? 국민의힘이라고 분명히 짜잡아서 저희들을 모독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 하여튼 말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박선영 위원장의 발언은 여든 야든 국민 일반이든 누구든지 들어도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었던 차에 용혜인 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귀로는 특정 정당의 당명을 거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정법을 써서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그런 점들을 참작해 가지고 최소한 정말 이 망언에 가까운 박선영 위원장의 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본인들에게 조금 듣기 불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말 떼거리로 발언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받아 줄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로 80년 광주는 소위 말해서 신군부의 정권력에 의해서 광주 시민들에게 총을 겨눴고 또 많은 희생자가 났던 아픈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치유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끊임없이 북한군의 개입설을 퍼트리면서 광주 시민들을 모독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집단이나 그런 부류가 있다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망언이라고 생각하고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민주화운동에 이 범죄적 행위를, 그리고 비상·불법·폭력적인 비상계엄에 항의하면서 짚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박선영 위원장의 망언은 지금까지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의사진행되는 수많은 논란의 발언 중에서 가장 최악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라고 야라고 입장이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고 국민이라고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도라고 전라도라고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규명된 진실입니다. 거기에 승복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이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회의가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가 조금 더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양부남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양부남 위원님,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다 나가셨습니다.

어찌 되었든 국민들이 우리 행안위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실망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을 따져 보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보면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5·18에 북한군이 관련되었다고 발언하는 순간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의 발언은 이 법 위반의 경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말인지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인지 실정법 위반을 넘나드는 발언에 대해서 5·18을 직접 겪었던 지역의 사람들과 특히 행안위원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한 감정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없지만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과 또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있었던 것이 우리 신정훈 위원장의 편협적인 사고가 아니다. 5·18을 경험한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느낌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걸 여기 국민 여러분과 국무위원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양부남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하겠습니다까?

○**양부남 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경찰청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양부남 위원** 자 보세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48년 정부가 수립되고 77년의 현정사 동안에 경찰이 야당 의원을 폭행한 사건이 몇 번이나 벌어졌을 것 같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양부남 위원** 모르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잘 모르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77년 현정사에서 경찰의 야당 의원 폭력 사건이 총 5건이 벌어졌습니다. 제일 처음은 자유당 시절에 국회 프락치 사건에서 체포영장 없이 국회의원을 경찰이 체포했고 구타를 했습니다. 63년 1개월이 지나서 안민석 의원을 이명박 정권 때 폭행했습니다.

그다음 넘겨 보세요.

그다음, 이 정권 들어서 7개월 사이에 박홍배 의원, 한창민 의원, 정혜경 의원에 대해서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현정 사상 77년의 역사에서 다섯 번 했는데 이 정권에서 세 번

이 발생했어요. 물론 이 폭행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은 나름대로 그 경위에 대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헌정사에서 다섯 번 벌어졌는데 이 정권 7개월 사이에 세 번이 벌어졌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 정권이고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 통계치입니다. 막말로 이야기하면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야당 의원 두들겨 패는 경찰 무서워서 야당 의원 못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양부남 위원 할 말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은 경찰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차장님 입장에서는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과 국민에 대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했지요, 지금까지? 그러한 개개의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물론 다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경찰을 보고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권력의 주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주구라는 표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77년 동안에 야당 의원을 다섯 번 폭행했었는데 이 정권에서 7개월 동안에 세 번의 폭행이 있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지금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양평 공홍지구 개발 사업 그 다음에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수사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이라도 당장 하십시오.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사하면서 출국금지를 안 했다는 것은 그건 어떠한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출국금지 하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수사기관에서 적정하게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차장님, 그런 애매모호하고 무책임한 발언 하시려면……

1분만 더 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구체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는 건 위원님……

○양부남 위원 제 말 들어 보세요!

지금 시종일관 답변 태도가, 여기 왜 나왔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수사권이 없는 거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양부남 위원 수사권이 없어도 지휘할 수 있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휘를 못 합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양부남 위원 그러면 차장 하지 마세요! 여기 나오지 마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찰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따구로 답변하고 있어요? 여기 장난하는 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께서도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라……

○양부남 위원 출국금지 하도록 지휘하시라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휘는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 가지고 경찰 믿겠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양부남 위원 출국금지 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법을 지켜야 되는 경찰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나왔습니까, 수사에 대해서 답변할 자격이 없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법에 그렇게……

○양부남 위원 그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나한테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TV를 보고 있는 5000만 국민에게 지금 그런 무책임한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한 점 의혹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책임감을 가지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이태원 특조위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이 있나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기준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기준 저희 위원회에서 2월 초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 대통령실에 명단을 보내고 검증을 마쳤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채현일 위원 언제 심의 완료를 해 가지고 언제 대통령실에 전달했나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기준 2월 중순입니다.

○채현일 위원 그때 그러면 권한대행이 누구지요? 최상목 권한대행인가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기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과장이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무처장 역할이 진상 규명하고 이런 특조위 조사활동의 가장 핵심 실무 책임자잖아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기준 예.

○채현일 위원 이 조사활동도 제대로 안 될 거고 책임 규명도 사실상 방해가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유족과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기준 유족과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참사의 진상을 빨리 알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관계

부서나 이런 쪽에 뭐 액션을 했나요?

○ 10·2901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기춘 저희들이 대통령실에 사무처장 임명에 관련돼서 계속적인 필요성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채현일 위원 그렇다면 인사혁신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의 역할과 책임은 뭔가요?

○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저희들이 인사 검증 관련해서는 관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아는 사항도 없습니다.

○ 채현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신속히 빨리 그 인사 검증이라든지 이런 후속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채현일 위원 원래는 이게 권한이었는데 어떤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인사 검증을 위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당초에도 저희들이 인사 검증을 한 건 아니고요.

○ 채현일 위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인사 검증이 지연되고 부실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거나 어떻게 방안이 있나요? 아니면 이거를 인사 검증 권한을 인사처로 회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까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채현일 위원 인사처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전달을 해서, 권한을 넘겼다 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인사혁신처가 그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조치를 취해서 빨리 사무처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좀 전달할 생각 있나요?

○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채현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주지를 좀 시키겠습니다.

우리 차관께서는 대통령기록관장 임명과 또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특히 당사자가 범죄 행위로 그리고 관리의 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그런 적절치 못한 행동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이라든가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엄정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가 바뀌어서 다시 그 문제를 뒤집어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엄정했다, 공정했다, 투명했다 하는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의 대행으로서 역할을 좀 충분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두 번째로 우리 차장께 말씀드립니다.

○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차장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내란 범죄라고 하는 것은 형사 관련 범죄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범죄는 다 통치권자에게 면책이 되는 그런 범죄이지만 면책이 되지 않는 유일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입니다.

두 번째로 내란 범죄의 수사권은 유일하게 경찰, 국수본에 있습니다. 경찰도 아니고 공수처도 아니고 유일하게 국수본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의 첫 발신자가 지금 가두를 행보하고 있어요. 이게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법 집행 아니지요. 내란의 우두머리에 의해서 이 행동을 했던 경찰 수뇌부가 다 구속되어 있잖아요. 현장의 사령관 명령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 위치에 있었던 군인들까지 지금 다 구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란 범죄의 최우두머리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지금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엄정하지 않아요.

저는 경찰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현재 과면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내란 당사자들의 행보를 보면서 경찰이 좀 더 단호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장께서 말씀하시는, 물론 어투도 그러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내란의 수괴를 떠받들었던 대통령실이 거부한다고 압수수색영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해요. 국민이 보기에는요 대단히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경찰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새 정부 들어서 특검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할 일은 해야지요. 경호처가 뭡니까? 비서실장이 뭡니까? 내란 수괴의 비서실장이에요. 법 집행이 정확히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110조, 111조 다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명분이 있는 법 집행도 힘에 밀려 가지고 어거지에 밀려 가지고 집행이 안 된다면 어떤 국민이 경찰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승복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란죄의 유일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오늘 국수본의 담당자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란죄 수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임의제출이 경찰이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임의제출이면 모르되 피의자이고 조사받는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임의제출이면 그런 임의제출을 통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압수수색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사의 방향이라든가 신속성, 절차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철저하게 내란죄 수사할 수 있도록 계속 국수본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내란죄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결의를 가지고 좀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오늘 회의 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윤건영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김종양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서면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직무대행, 소방청장,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김성희 김종양 모경종 박정현 배준영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동만 정춘생 조승환 조은희
채현일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서기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자연재난실장 오병권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지방행정국장 조영진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의정관 김한수

인사기획관 서주현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 김기영

대통령기록관

관장 이동혁

인사혁신처

처장 연원정

기획조정관 김성훈

인재채용국장 손무조

인사혁신국장 유승주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인재정보기획관 이은영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기획조정관 도준수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수사국장 김병찬

소방청

청장 허석곤
기획조정관 오승훈
화재예방국장 홍영근
장비기술국장 윤상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사무처장 송상교
기획운영관 한성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기획조정실장 조규영
선거1국장 윤재수
법제국장 도희락
조사국장 조봉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박현도